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39 - Autumn 2020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금, 공공건축 사업의 입지, 규모, 예산, 일정 등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면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의 의미와 제도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aur_i)

건축과 도시공간

Vol.39 - Autumn 2020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39
Autumn 2020

발행
2020년 9월 30일

발행인
박소현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임유경

편집
이미영, 김민자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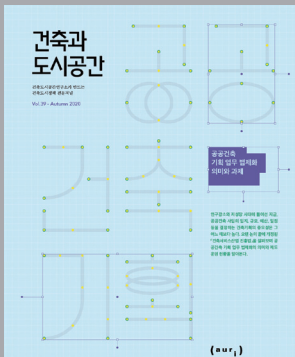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밧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공공건축을 기획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공건축이 들어서는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쓰임을 살피며
이를 어떻게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에 담아낼 것인가
고민해 그 방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때 질 높은 공공건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 기획을 확대하고 정착시켜 나갈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강미선	006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전개와 제도화	임유경	012
건축기획 본격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방대혁	020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건축기획의 개념과 수행 원칙	임현성	027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학교 공간의 변화를 구상하다	양민구	034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공공건축 기획업무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	박석환	044

통계자료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현태환	052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런던의 거리 계획	김상희	058
	파리의 벨로폴리탄 정책을 통한 도로 개혁 시도	유무중	063
	시카고의 도시 노후 건축물 관리·재활용 방안	강기향	068
국내동향	민간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기범	072
	'동네행복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방안	이지혜	077
해외단신	도심 속 공원이자 랜드마크, 싱가포르 주얼창이공항 인공정원 조성 외		082
국내단신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노력 외		091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주택 및 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호주주택·도시연구소	임보영	098
--	-----	-----

장소탐방

재생, 오래된 동네가 잊혀진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 종림창고	강정은	106
항공 100년의 역동성을 담은 건축 - 국립항공박물관	윤세한	122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38
· 2020 제1차 DIT 워크숍 'Come on DIT' 개최	141
· 로컬-리콜(Local Recall) 첫 번째 시리즈 '신제조업의 영민한 루키' 제1~3차 개최	142
· 제2, 3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건축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 개최	143
· 제3~5차 건축서비스산업 세미나 '수요살롱' 개최	144
· 제5~11차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CPTED 관련 교육 세미나 개최	145
·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한 강연회	145
·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지역보존정책' 개최	
· 제3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개최	146
· 공공건축 세미나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개최	146
·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마도로스의 밤' 개최	147
· 제2차 auri 지식강연회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유형화' 개최	147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1

공공건축은 모두를 위한 건축물임과 동시에 특정 이용자를 위한 건축이며, 동일 용도의 시설이 여러 지역에 건립되지만 지역의 일부분으로 동네의 풍경을 이룬다. 공공건축은 또한 공공서비스의 거점이자 공공의 자산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이 요구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금, 공공건축 사업의 입지, 규모, 예산, 일정 등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획의 부재’는 우리나라 공공건축 조성 과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오랜 논의와 제도화 노력 끝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부터 공공건축사업에 있어서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의 의미와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주시립현대미술관 전경



미술품과 공동체 지원회의체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 이화여자대학교의 강미선 교수가 후배 교수와 나누는 문답을 통해 건축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건축기획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현업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과 학교에서 논하는 건축과의 차이, 건축기획의 역할, 실제 건축기획 작업을 진행하며 체험한 고민과 개선 사항들에 대해 담론했다.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전개와 제도화 | 건축기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을 합리적인 기간, 예산, 절차에 따라 건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다.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대두된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건축기획 본격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서울시 등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들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본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건축기획의 개념과 수행 원칙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이 내실화되고 활용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되어 온 유사업무와의 차별성이나 건축기획의 운영 취지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여 공공건축에서 기획이 가져야 할 가치를 짚어본다.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학교 공간의 변화를 구상하다: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 김영수도서관은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 ‘학교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낸 성과이자 ‘제주형 도시재생 협업 모델’이다. 최소한의 운영보조와 주민,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며 도서관을 이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가치를 깊게 인식하도록 돕고 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 곧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만큼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관련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건축기획의 수행 여부는 기본계획,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기획보고서, TFT 운영, 전문가 자문 등 관련 자료의 유무로 확인해본다.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006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전개와 제도화
012

건축기획 본격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020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건축기획의
개념과 수행 원칙
027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학교 공간의 변화를
구상하다: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034

공공건축 기획
업무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
044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기획의 개념, 건축기획의 중요성과 관련 이슈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건축기획을 주제로 필자와 후배 교수가 나눈 문답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현장에서 이해하는 건축과 건축기획의 역할,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건축기획작업과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 제도적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생각을 이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건축학 교육과 현장의 갭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과목을 하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졸업생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 현업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학교에서 늘 논하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우리 졸업생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건축의 핵심은 교육과정에 잘 들어 있죠. 하지만 건축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은 늘 변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좋은 건축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꽤 오래전부터 5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기획’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과목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기획하는 전문가들을 초대하거나 현장을 찾아가죠.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는 학교도 있더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건축학 교육과정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해요. 바로 부동산으로서의 건축, 상품으로서의 건축, 공간시장, 공간서비스 등이죠. 실무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 목표를 파악하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랄까요? 모든 건축주는 건축행위를 통해 공간의 생산성을 만들어 내기 원하죠. 만들어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주로 간접적인 이익이고, 그때 건축은 부동산으로 작동하죠. 또한 건축을 투자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건축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획과정이 치열해요.

건축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1991년 박사과정 수료 후 취업한 설계사무소에서 대기업 오너의 건축 프로젝트를 몇 개 하였는데, 애플컴퓨터로 엑셀을 사용해 캐시플로를 만들었어요.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하죠. 1990년대 중반쯤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며 시행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3차원 공간을 다루는 건축가들이 재무 관련 지식을 배워 사업기획을 하면, 공간의 확장성을 잘 아니까 다른 분야 전문가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사업성 분석이 바로 건축기획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건축기획단계의 피저빌리티 분석에 관한 연구’로 썼습니다. 당시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반대도 심하였고, 돈 얘기는 절대 쓰지 말라는 압박도 받았죠. 건축행위의 선행조건이 땅·용도·자본인데, 그중 자본을 다루지 말라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미국의 AIA 핸드북에 이미 pre-design service가 건축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일본건축학회에서도 ‘건축기획’이란 책을 막 출간하던 때입니

건축기획이란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이다. 입지·대상지의 요건, 사회·경제환경, 수요요건 등으로부터 다양한 구상이 추출되어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다음 설정된 건축목표를 구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요건에 맞게 변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건축주가 생산주체인 건축가·시공사 등에게 건축의도를 전달하고 설계와 시공에 착수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강미선. (1997). 건축기획단계에서의 피저빌리티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다. 그 이후로도 건축계에 기획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별로 없었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기획이라는 분야가 공공건축 생산의 법적 절차 안에 들어왔어요.

건축기획은 건축주의 학습과정이다

그럼 실제로 건축기획작업을 하신 사례가 있나요?

이화여대의 지하캠퍼스 ECC의 실무총괄을 5년간 맡았었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하었어요. 학교 앞을 지나는 경의선 복선화로 진입로 레벨이 높아 지니 그것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짓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자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의 1년간의 기획과정을 거친 후 국제공모를 통해 지금의 ECC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해진 공간요구, 아카데미 플랜을 비롯한 학교 내부요인의 변화, 세계적인 캠퍼스 트렌드를 비롯한 외부요인들을 조사하고 미래의 캠퍼스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생활앵커로서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를 위한 지원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설계지침화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였고, 이후 총장이 바뀌면서 난관을 겪기도 하였지만 탄탄한 기획과정을 담은 기획서 덕분에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완성되었고, 감히 캠퍼스의 새 장을 열었다고 자부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후 기획과정이 충실하지 못해 건축기간과 예산에 큰 착오를 겪은 DDP의 진행과정과 많이 비교되었죠.

충실한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건축주 조직이 복잡해지고 의사결정자가 프로젝트 진행 중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ECC 기획 과정을 통해 정리한 또 하나의 기획에 대한 정의는 ‘건축기획은 건축주의 학습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무팀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와 논의하고, 중간중간 의사결정조직에 보고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각자 머릿속의 완전히 다른 그림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용역에 맡겨진 후 한두 번의 보고로 끝나는 기획절차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막연하던 프로젝트의 목표가 선명해지기도 하고, 숨겨져 있던 목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대기업 사옥 프로젝트 기획을 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확장되는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할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기 원하였으나 임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추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한 엑시트 플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필지 통합을 하지 않고 몇 개의 건축물로 나누어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미래가 빠진 공공건축의 기획

기획이 공공건축 생산의 법적 절차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잘 되고 있나요?

공공건축을 만드는 제도적 절차가 토목 생산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만들어 건축 고유의 생산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을 만들 때 건축기획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도 만들어 졌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의 건축기획에 대한 정의를 보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 전략수립 등을 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획의 존재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인데 실제 사례를 보면 현재의 요구사항만 나열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안타깝더군요. 공모운영 용역을 건축기획용역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실한 기획 때문에 공모 이후 끊임없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죠. 기관장이 바뀌면 또 안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공공건축의 공모지침서들이 복사한 듯 뻔한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군요.

기획작업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협의의 작업으로 이해한 탓입니다. 그냥 물리적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면적표를 작성하는 정도죠. 문제는 미래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지 조사하고 좋은 사례를 찾고 공부하여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요구에만 머물러 있어요. 수익성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민간건축의 경우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상품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건축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해야 하기에 시장이 세분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간기반 기획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공건축의 질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죠.

공공건축의 시민가치

그럼 민간건축의 수익성을 공공건축에서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쓰타야서점을 만든 마스다 무네아키가 쓴 ‘지적자본론’을 보면 다케오시(武雄市) 시장인 히와타시 게이스케와의 대담이 나옵니다.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인 다케오는 시립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기획과 운영을 무네아키의 CCC에게 맡겼고, 단순한 공간의 운영이 아닌 책을 매개로 한 교육혁명으로 이어지며 일본의 명소를 만들어 냅니다. 공공건축을 통해 지역을 디자인하는 힘을 보여주죠. 일반적인 민간시설에서 고객가치로 평가되던 부분을 시민가치로 치환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수익성은 꼭 금전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창출이라면 이해가 쉽겠네요.

아, 맞아요. 최근 만들어지는 공공건축 중 운영업체를 먼저 정하고 만들어진 노들섬 사례가 있지요.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선례가 없어서요.

네, 유명한 얘가지요. 운영업체를 미리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 지금과 같은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 후 부수고 고치는 폐해를 줄일 수 있겠죠. 공공건축도 복합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미래의 콘텐츠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공공건축이 주변의 좋은 민간건축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건축기획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재건축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획과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1,300여 가구의 건축주가 모두 자기 머릿속의 다른 그림을 전제로 얘기하니 의견이 모아질 리 없죠. 건축기획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의외로 구청에서 ‘그걸 왜 하나’는 의견을 내더군요. 수천억 원의 사업을 기획과정 없이 대충 공모한 후 끊임없이 설계변경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또 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 불신해 대립하죠. 좋은 집 지으려다 기존의 커뮤니티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지닌 도시계획사업이고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큼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도 건축기획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건축기획과 관련해 시급한 정책 안건은 적절한 용역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초기에 쓰는 비용은 이후 발생할 리스크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비용 책정이 필요합니다.

건축기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군요. 제도적으로 건축기획 과정이 구축되었으니, 이제 더 멋진 공공건축의 출현을 기대해봅니다.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전개와 제도화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연구단장

들어가며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행복이음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만다비국민체육센터... 최근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이름이다. 오늘날 공공건축물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을 가꾸는 중요한 장소로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공공건축물은 약 5,000동으로, 공공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2.5%)은 전국 건축물 증가율(1.0%)의 약 2.5배에 이른다(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9, p.7). 우리 주위에 지어지는 이 시설에서 과연 의도한 바대로 주민이 반갑게 만나고 청소년이 신나게 여가시간을 즐기며, 노인이 서로 소통하며 행복해지고 있을까?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793건의 시설에서 -8,410억 원의 순수지가 발생하였으며, 시설 증가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제공되므로 적정 운영수지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우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초기 단계부터 변화하는 여건과 이용자의 수요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누구나 가고 쉽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 '기획의 부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의 품질 문제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은 2005년 12월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발족하면서부터이다. 위원회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라는 지향점 아래 다양한 과제를 추진했는데, 공공건축은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발주단계에서 획일적인 발주기준과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부족 등을 문제로 보았으며(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외 2006, p.37), 건축 기획 단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좋은 공공발주자상 시상' 제도를 신설하였다.

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2007년에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을 주요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2007년 9월에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AURI 공공건축설계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중요 원인으로 '기획의 부재' 문제에 주목하였다. 특히 우리의 공공건축이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초기 기획과 설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았다(조명래 2007).

연구의 축적

학계에서 건축기획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박한규(1992;2008), 강미선(1997), 장성준(1998;1999;2002), 박일우·김영기(2001) 등이 건축기획의 개념과 건축기획업무 체계화 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획이 아닌, 공공건축의 기획에 대한 논의는 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소의 첫 번째 공공건축 연구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서수정 외 2008)> 연구에서는 공공건축 조성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공공건축 조성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기획과정 대부분이 경제성이나 사업성 평가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행위에 치중되어 있어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하는 사전기획단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후속 연구인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조준배 외 2008)>에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그램을 공간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건축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어진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김상호 외 2009)>에서는 디자인 품질지표를 기획 단계부터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청사 건축 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염철호 외 2010)>에서는 국내외 공공청사 조성 사례와 기준·지침을 분석하여 기획, 계획·설계, 시공, 사용 단계별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두 연구가 기획 단계에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2)(서수정 외 2011;2012)>에서는 공공건축 기획 단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제시하였다.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해 기획업무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보고서에서 기획업무의 주요 내용을 재정의하고 기획업무 양식서 작성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기획 관련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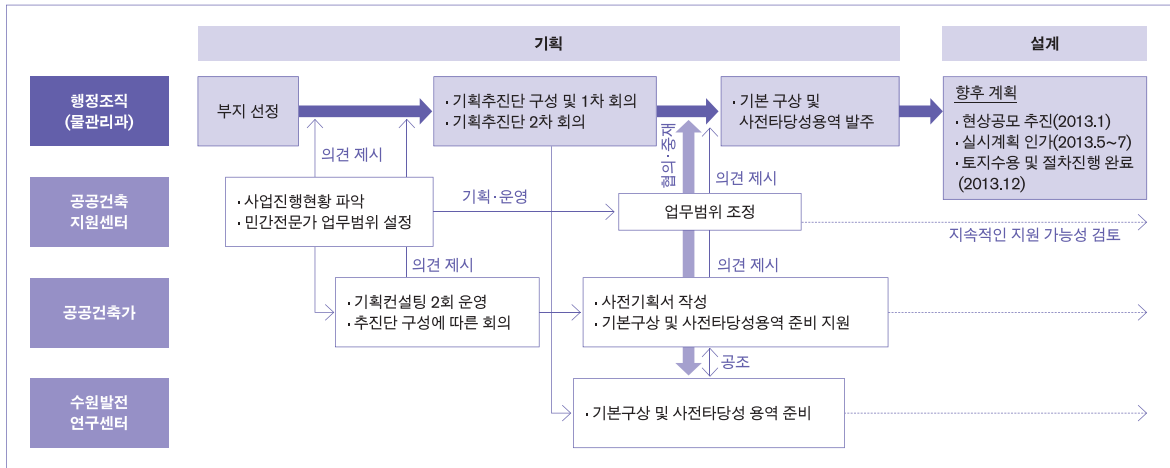
- 서수정 외(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 조준배 외(2008),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 이상민 외(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 김상호 외(2009),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
- 염철호 외(2010),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I)
-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II)
- 임현성 외(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 김은희 외(2017),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 박석환 외(2018),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구현에 관한 연구
- 박석환 외(2019),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 디자인 및 제도 개선 방안

건축기획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2012년에는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임현성 외 2012)〉에서 국내 건축기획업무 수행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물의 ‘기획’ 개념 정립, 업무 영역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건축기획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김은희 외 2017)〉 연구에서는 건축기획의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가기준 설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실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구와 함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였다.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2008)〉에서는 영주시와 제천시를 대상으로 사전준비, 통합 전략 수립 및 마스터플랜 작성, 실행계획, 우선추진 프로젝트의 네 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통합화 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공공건축 현황, 문제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 전반의 공공건축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세부 기획 이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기획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2)(서수정 외 2012)〉에서는 공공건축 기획 단계 지원 업무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수원시 물체험관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기획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검토 및 지원, 설계 이행지침 작성, 본 기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2년 5월에 행정 담당자와 공공건축가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된 기획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해 기획서와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전 기획을 실시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기획 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체계와 기획서의 주요 내용 등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건축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수원시 물체협관 건축 세부 추진 일정
출처: 서수정 외(2012, p.157)

공공건축 기획 업무 제도화

2018년 12월 18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일부 개정으로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조문이 신설되면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이 의무화되었으나, 건축 관련 법 제도에서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는 ‘건축디자인’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기획’을 설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업무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2009년 12월에 제정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25호)’에 반영되었다. 업무기준 제3조(기본방향) 제1항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 방향, 사업방식 등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제2항에서는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2장 ‘디자인 단계별 기준’의 제10~14조에서 사전조사, 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의 결정, 대상지 분석,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기본계

획 수립 등의 건축기획 단계 업무 내용을 명시하였다. 2011년에는「건축사법」 제2조의 ‘설계’ 용어 정의에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건축기획이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행위 중의 세부 업무로 명시되었다.

2013년 6월에「건축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건축기획 업무가 공공건축 조성 절차상에 제도화되었다. 법 제4장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문이 포함되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용도의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활성화 및 설계의도 구현 조문과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건축기획업무를 의무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건축서비스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제도화되어 법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역량 부족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하향식 의사결정 때문에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주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건축 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건축서비스법」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2019년에 전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다. 현행 업무기준 제4조(기본방향)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또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규정하여 기획 단계의 주체 간 협의 또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법」에 ‘건축기획’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되고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업무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제22조의2)된 것은 2007년 「건축기본법」제정 당시부터 건축기획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어져 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연속선 위에 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제도화 과정

연도	법령, 행정규칙	주요 내용
2007. 12. 21. 제정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건축디자인’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로,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
2009. 12. 28. 제정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3조(기본방향)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이 건축 조성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2011. 5. 30. 일부 개정	「건축사법」 제2조(정의)	‘설계’의 용어 정의에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건축기획이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행위 중 세부업무임이 명시됨
2013. 6. 4. 제정	「건축서비스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용도의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활성화 및 설계의도 구현 조문과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2018. 12. 18 일부 개정	「건축서비스법」 제2조(정의)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건축기획’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되고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화하는 조문 신설

나가며

지난여름에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심사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의 공릉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화장, 유튜브 시청, 편의점 등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공간이 건축가의 세심한 노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2010년에 건립된 센터를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였는데, 운영자와 건축가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필요 공간을 도출하고 설계 방향을 논의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간을 실현한 것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건축기획 단계가 없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보면서 건축기획 단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기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을 합리적인 기간, 예산, 절차에 따라 건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다.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오랜 논의와 제도화 노력 끝에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고 해당 업무가 의무화되었다. 건축기획업무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 사례가 축적되어 공공건축 기획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9).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97호.
- 3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 연구.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 4 조명래. (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자료집.
- 5 서수정, 류현숙, 정지범. (201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기획 본격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방대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위

모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 수행 등을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이 공포(2018. 12. 18.)되고 이후 시행(2019. 12. 19.)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서울시 등 지자체 담당자로 TF를 구성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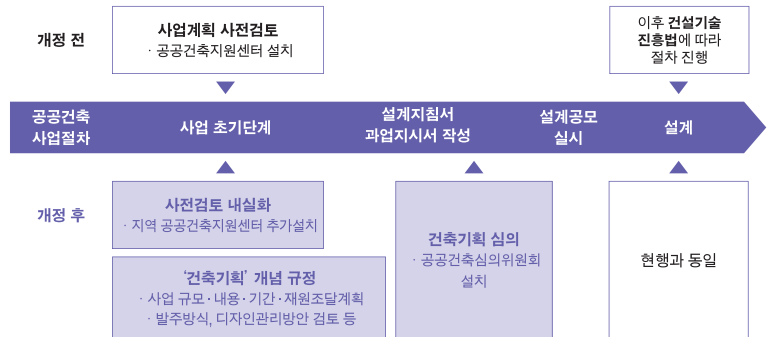
「건축서비스법」 제2조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 대상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2019. 4. 18.,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에 따른 사항들도 포함되었다. 총 4차례의 회의 끝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9. 26.~11. 5.), 법제처 심사(11. 19.~12. 3.)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12. 3.) 후 공포(2019. 12. 17.)되었다. 이로써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었다.*

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건축서비스법」 개정 전·후 업무절차 비교



① 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 2)

-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수행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② 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 3)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기본구상'과 '공사수행방식 결정' 수행을 인정

③ 건축기획 심의 대상사업(안 제19조의 4)

-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

④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제19조의 5)

-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제19조의 6)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 7)

- 위원회 구성, 회의 개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요청, 위원 임기,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

⑦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안 제20조의 2)

-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공사비 예산 30퍼센트 이상 증감, 주 용도 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대상 규정

⑧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의 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승인 재요청 기준, 운영실태 평가, 사전검토 결과 통보,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

* 건축기획 개념 규정 등 「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은 <건축과 도시공간> 2019년 봄호(vol.33)의 국내동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 참고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①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1조)
 - 기존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수상실적을 인정
- ② 설계공모 대상 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 제2항)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 ③ 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 제4항)
 -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제반 업무를 국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함
- ④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0조)
 - 사전검토 제외 대상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수행 대상으로 명확화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의 건축기획 관련 주요 내용

건축기획 업무내용(제19조의 2 제1항)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건축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하려는 취지이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①(생략)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⑥(생략)	제19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①법 제22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활용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접근성·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④(생략)

건축기획 심의 대상사업(제19조의 2 제3항)

조달청 나라장터의 2017년 설계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비 5,000만 원 미만은 신축·증축 사업이 31.9%에 불과하나 5,000만 원 이상은 신축·증축 사업이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적으로 기획심의 대상을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설계비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기획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③ (생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 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⑥(생략)	제19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2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생략)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제19조의 2 제4항)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는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를 활용하자는 TF 논의결과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최근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를 전문가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도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 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3.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u> ⑥ (생략)	제19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22조의 2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제19조의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용역 발주 전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이는 기획업무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 단순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심의 내용은 공통사항(설계지침서와 과업지시서의 적정성)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타당성 조사의 수행 여부에 따른 사항으로 구분된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 2 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u>설계용역 과업 내용</u>의 적정성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④(생략)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 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22조의 3 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 (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타당성 조사는 사업 규모(설계비나 공사비)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 규모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절차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

①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기획보완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 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 원(설계비 약 20억 원) 이상)

	건축기획	⇒	타당성 조사	⇒	기획보완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국가재정법」의 예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 주체	발주기관		KDI, KRILA (LIMAC) 등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③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5,000만~1억 원 사업)

	건축기획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내용 적정성 심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 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④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5,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

	건축기획	⇒	설계발주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 주체	발주기관		발주기관

* 다만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나가며

건축기획 업무 수행의 의무화 시행 초기에 현장혼선 발생 등이 우려되었지만,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연구원 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큰 혼란 없이 8개월이 지나갔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건축기획 제도가 문제 없이 잘 운영되기까지는 몇 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공공건축 품격 향상으로 체감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건축기획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숙제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축기획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건축기획의 개념과 수행 원칙

임현성
공간연구소 올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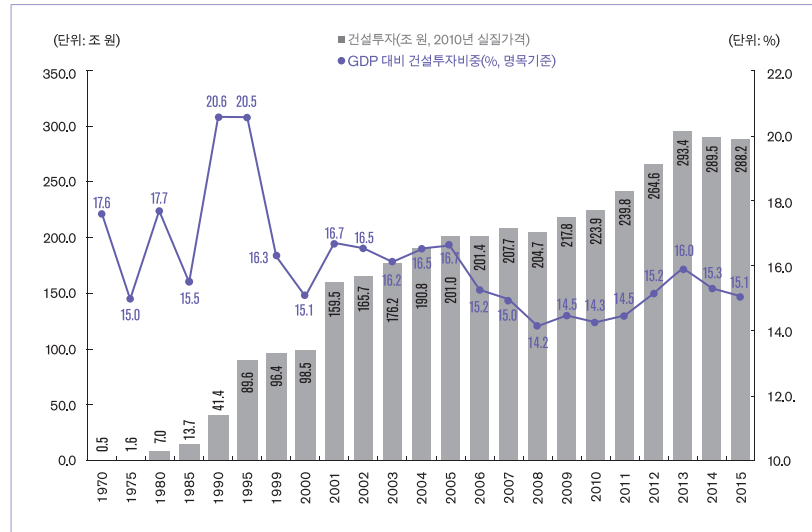
들어가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되면서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은 내실화되고 활용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 건축기획 업무는 여전히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다. 개정된 법률 조항만으로는 기존에 수행되어 온 유사업무와의 차별성이나 건축기획의 운영 취지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념과 수행 원칙을 정립하여 공공건축에서 기획이 가져야 할 가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불확실성과 건축기획의 강화

건물은 짓기만 하면 유용하게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증가하는 인구와 발전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많은 건축물과 시설이 건립되었다. 건설투자의 증가에 발맞추어 건축 시장 또한 고도성장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0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성장을 둔화와 경기 침체는 건설투자 비율을 감소시켰고 건축 시장은 정체기를 맞이한다. 저성장의 기조와 맞물려 저출산으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건축 시장은 신축 수요가 축소되고 유지·보수가 주가 되



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홍일 2017, p.5). 이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는 건축물이 본래 취지대로 조성되지 못하거나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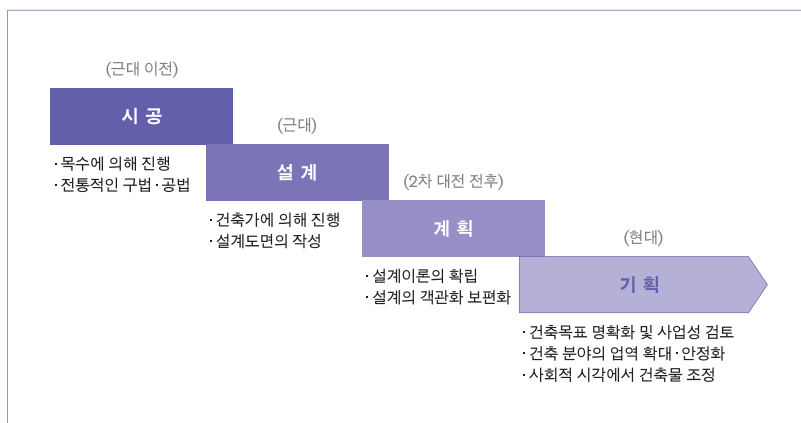
반면 건축물이 담아야 할 서비스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화율이 80%(동지역 거주 인구 기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는 건축물의 복합화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는 기존의 단일한 용도와 목적에서 다중의 용도와 복수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니즈(needs)가 매우 다각적이고 다층적이다. 최적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서비스 운영 방향을 내릴 있게 결정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건축물을 통해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졌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역사적으로 건축물 조성 단계는 실제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 근대화 이전 건축물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목수들에 의해 전통적인 구법으로 지어졌다. 시공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근대화 이후 산업혁명으로 시공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장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으나 도시화로 출현한 대형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도면의 완성도와 설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세계대전 후에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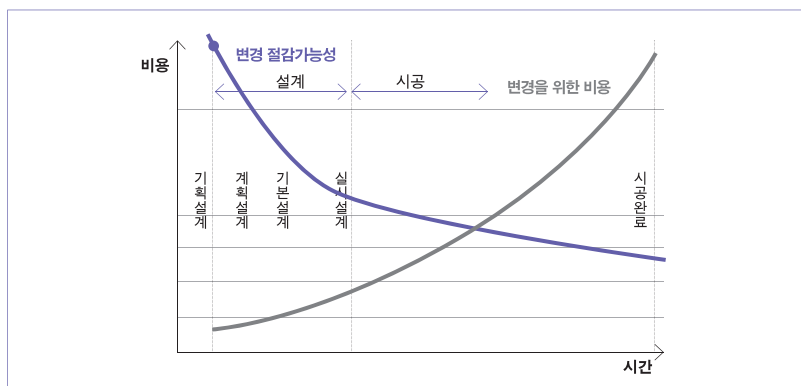
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한 표준도면이 등장하고 설계이론이 확립되면서 건축계획이 주목을 받게 된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초기 검토와 준비에 비중을 두게 되고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건축기획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건축기획이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한 프로젝트의 건축공사비가 전체 투자비의 43~6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투입비용이 5% 미만인 초기 기획단계에서 전체 비용의 80%가 결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성수 외 2006, p.127). 초기 기획단계의 역할을 강화할수록 사업비(공사비)는 절감되고 사업의 변경 가능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건축활동의
시대별 변화와 기획의 중요성
출처: 임현성 외(2012, p.18)



건축개발사업의
비용절감 가능성과 변경비용의 관계
출처: 임현성 외(2012, p.26)



‘기획(企劃, planning)’의 사전적 의미는 “꾸며 계획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행동을 설계하는 일^{**}을 가리킨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경영,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각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이라는 개념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며 주요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건축 분야에 적용되는 기획의 개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의 내실화를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건축기획은 위험을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건축물의 건립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세부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사업 목표로부터 의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 가는 과정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분석·진단을 바탕으로 입지, 수요, 규모, 예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이고 유연한 실행 방안(action plan)을 도출한다. 단순히 결과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도출된 실행 방안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불필요하거나 지양해야 할 조건은 명확히 제시하되 대안은 되도록 유연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넷째, 축적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기획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업무이다. 하지만 용도가 복잡화되고 규모가 대형화되며 추진여건이 복잡해질수록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행정의 일부인 공공건축은 기획단계에서 각종 심의, 관련 조직 및 사업 간 협의, 수요자의견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업무 난도가 높아 별도의 기획기관(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이성복 2000, pp.597~598). 이러한 배경으로 발주자의 책임하에서 전문가가 건축기획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 HRD 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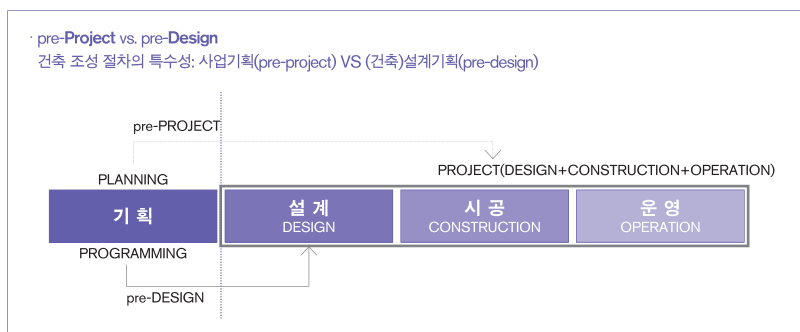
건축기획의 이중적 의미와 상호보완성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은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선 사전단계로서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적용되었을 때 건축기획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Gibson 1995, p.312).

먼저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건축물 조성과정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project)로 보았을 때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기획(planning as pre-project)’의 의미를 갖는다.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잠재위험에 대처하고 자원할당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 개발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기획은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며 조직화 및 운영 방향을 도출한다.

반면 건축물 조성의 첫 단계인 설계(design) 업무를 지원하는 ‘설계기획(programming as pre-design)’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간, 건물, 시설, 물리적 환경 등을 디자인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다(김광춘 외 1996, p.782).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기획은 운영 프로그램과 내외부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반영될 설계조건을 결정한다.

건축기획은 ‘사업기획’과 ‘설계기획’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이하게 적용되거나(이현창 외 1998, p.76) 완전히 개별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사전단계로서 건축기획의 이중적 의미(pre-project vs. pre-design)

출처: 임현성 외(2012, p.16)

국내의 경우 사업기획은 분석·조사·심사 등과 같은 업무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이나 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주도해 왔다. 반면 설계기획은 ‘가설계’와 ‘기획설계’ 등의 명칭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 법규 해석, 규모 산정, 개략 공사비 산출 등 주로 건축설계 업역과 건축사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의 건축기획 업무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건축사업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금·토지의 확정 여부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뿐(임현성 외 2012, p.17) 어느 경우이든 두 가지 측면의 업무가 상호보완적(타츠미 카즈오 2004, p.14)으로 이뤄질 때 기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공건축의 기획, ‘경제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 노력

바람직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서비스 관점에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성(수익성)’과 ‘공공성(공익성)’이라는, 양립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막대한 부채와 운영 적자로 폐쇄된 지방의료원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수익확보 가치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폐원이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의 의료혜택은 크게 저하되었다. 최근 재개원이 논의되어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니 가치판단의 편중이 낳은 사회적 손실이 상당하다. 반대로 안일하고 방만한 시설 건립으로 이용수입이 충분치 않아 운영비의 상당액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공공건축 사례 또한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건립 여부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과 시설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균형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재원의 한계와 형평성 있는 혜택을 위해서는 시설 수준을 무한정 높일 수만은 없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용에 불편과 심리적인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공간의 질이 낮아져서도 안 될 일이다.

공공건축의 종류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단일한 기준으로 두 가치 간의 우위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가 중요하듯이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좋은 공간으로 이어질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할지는 기획단계에서 역량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관여하고 균형 있는 가치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광춘, 현창택, 김문한. (1996). 건설투자사업의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화.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6(2).
- 2 이현창, 장성준. (1998). 건축기획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기획모델 설정.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8(2).
- 3 이성수, 강경인. (2006). 건축전공자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3).
- 4 이성복. (2000). 도시행정론. 법문사.
- 5 이홍일. (2017).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특징.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6 임현성, 김영현. (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7 타츠미 카즈오. (2004). 건축기획. 최준영 역. 기문당.
-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 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효과. SPECIAL ISSUE FOCUS.
- 9 Gibson, E. (1995). Preproject-planning process for capital facilities. J. Constr. Engrg. and Mgmt., ASCE.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학교 공간의 변화를 구상하다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양민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팀장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재생사업의 가치

학교는 근린주구의 핵심요소이자 마을의 중심이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학교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주민들은 학교 동문 또는 학부모이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된다.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이렇게 학교는 아이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된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호 결과물인 ‘김영수도서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도서관’을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 ‘학교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낸 성과이자 ‘제주형 도시재생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제주관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 최초의 초등학교이자 한때 학생 수가 3,000여 명에 달하던 유서 깊은 학교이다. 그러나 원도심의 쇠퇴로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203명으로 줄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 공간인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김영수도서관’은 학교 20회 동문인 故 김영수 씨가 1968년 어머니의 90회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 기증한 제주 최초의 학교도서관으로 학교와 지역에 있어 중요한 건물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중 김영수도서관 내용

이런 김영수도서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지역에 개방하는 일은 기증자인 김영수 씨의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처럼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기증자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였다. 학교가 ‘김영수 정신’을 지켜 마을에 도서관을 되돌려 주었고, 여기에 지역 건축가의 창의적인 설계와 행정·주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서 이제껏 없던 ‘원도심만의 특색을 지닌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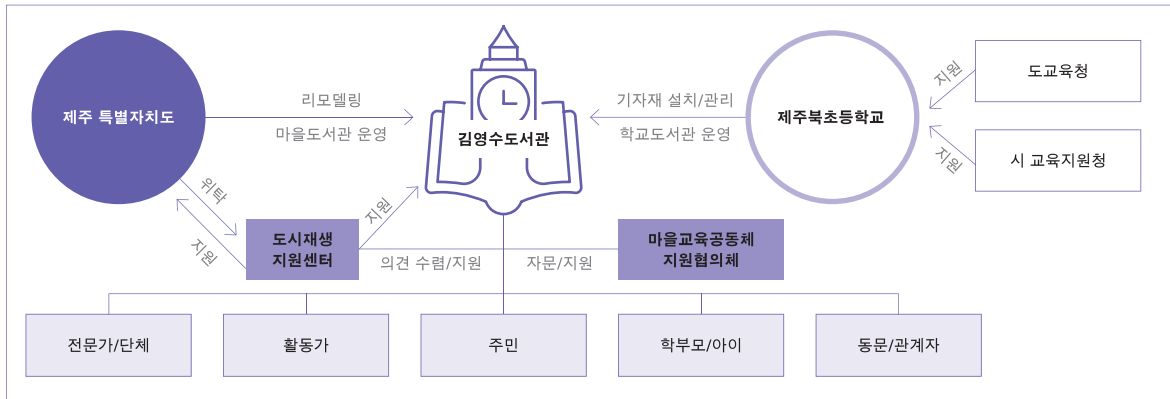
그렇게 김영수도서관은 학교를 넘어 마을이 함께하는 도서관이자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의견 수렴에서 참여까지, ‘김영수도서관 거버넌스’

제주시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다 보니 적정 부지의 확보부터 쉽지 않았고,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보존구역이었기 때문에 마을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사업 기획-설계·시공-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행정·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지역주민과 지역 내 자생단체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부지 확보와 사업의 방향 등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적정 부지의 확보 및 신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초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운영 체계

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업대상지로 제안된 제주북초등학교 내 별관으로 있던 김영수도서관의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학교·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사업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학생, 더 나아가 학교 동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위해 공간을 기획할 수 있는 건축가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였다.

이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조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였다.

학교 공간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에 운영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학교와 함께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후 5시까지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후 시간과 주말에는 마을에 개방기로 결정하였다.

마을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조성주체·이용주체·운영주체가 각각 다르고, 김영수도서관 사업의 경우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을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수도서관의 기획·설계와 이용자 참여 디자인

‘김영수도서관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김영수도서관 외에 인근 유희공간인 옛 관사와 창고를 함께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되었다.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시설의 활용 및 인근 유희공간과의 기능적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기에 설계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였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단계부터 지역의 건축가이자 제주북초등학교 학부모인 신진 건축가에게 기본구상을 의뢰하여 사전 기획단계를 강화하였고, 센터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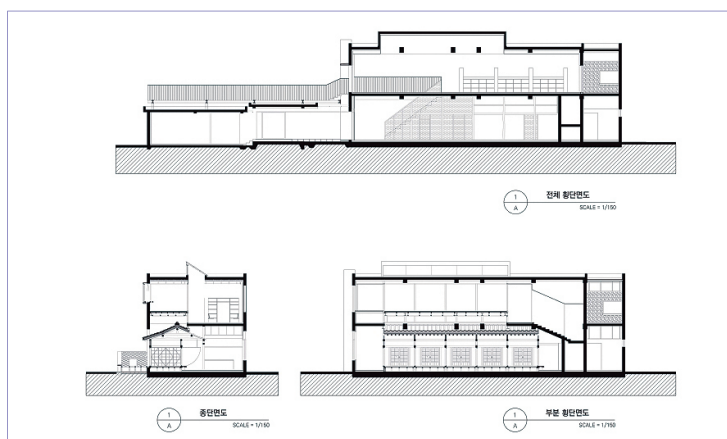
김영수도서관
초기 기획스케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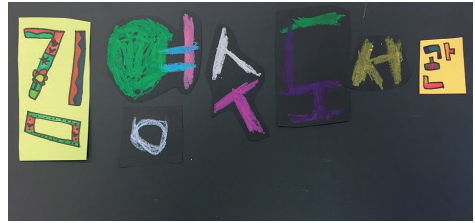
김영수도서관
설계도(단면도)

©틀라지에건축사사무소





6학년 미술수업(도서관 구상)



유치원 미술수업(김영수도서관 간판 손글씨)

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회·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방지원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학교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설계에 반영되어 도서관 내 공간이 조성되고 간판이 만들어졌다.

단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에 참여하여 약 3개월에 걸쳐 학부모 중심의 도서관 운영계획도 수립하였다.

또 도서관이 조성된 후 운영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전문가 등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위한 사전작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 과정 참여모델을 지향하였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학부모총회 설명회(상)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협의체(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

김영수도서관의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관행을 없애려 노력하였다.

시공 과정에서 도면 해석의 차이나 자재 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건축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자를 공사 총괄 감리자로 정해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시설에 대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발주처와 학교·교육청·사업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급자재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은 계약부서와 협의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 김영수도서관의 설계 콘셉트에 따라 내부에 한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참나무 고목을 구하려 설계자와 현장소장이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고자재를 확보하였고, 전통 목구조로 시공하기 위해 경복궁을 복원한 대목장을 직접 찾아가 섭외하는 등 계획·설계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고 관급공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영수도서관 설계의도 구현 프로세스



©계주별별저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영수도서관 준공기념 제북페스티벌(좌)과 재개관식(우)

이와 함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학교 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김영수도서관 상량식’을 여는 등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

공간이 가진 힘, 학교도서관의 변화

김영수도서관은 인근에 사용하지 않던 옛 관사와 창고를 같이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365m²의 지상 2층 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김영수도서관의 가치와 기억을 지키기 위해 외관은 최대한 보존하였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원도심의 정체성과 학교 주변의 풍경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계주별별저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영수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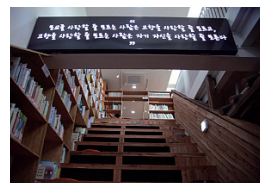
그렇게 한복판에 작은 기와집이 들어앉은 독특한 구조의 도서관은 1층에는 한 평 남짓한 방 5개가 장지문을 두고 이어져 방 사이의 문을 열면 하나의 큰 방으로 합쳐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한옥방이 생겼고, 2층 열람실에는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제주 목관아를 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파노라마 창이 설치되었다. 동굴 같은 화장실, 기와를 엮은 테라스, 계단서가와 밑의 비밀스러운 방 등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공간들도 만들어졌다. 옛 관사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가족과 독서모임을 위한 사랑방, 그리고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돌봄 공간도 도서관과 연결되면서 커다란 하나의 집이 되었다.

김영수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케 한 공간이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갖게 되는 상식적인 모양새를 깨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학교·건축가·행정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업체계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아이를 키우며, 어른도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책원 센터



테마 열람실 '한옥방'



계단서가 '충충다리'(상)와 열람실 '목관아가 보이는 책뜰'(하)

사업시행 전	 전 김영수도서관	 옛 관사(인쇄소)	 창고
사업시행 후	 현 김영수도서관	 아이쉼터(사랑방)	 아이들놀(온기나눔방)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고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은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을 딛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많은 기관과 단체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였다.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방하여 두 개의 운영체계로 운영되는 사례도 제주도 아니, 전국에서 최초의 일이다. 이제 김영수도서관은 평일 오후 5시까지는 학교도서관으로,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마을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개의 운영체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되기에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로 다른 두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영수도서관이 마을에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 그림책 읽어주기(상)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하)



6학년 한지창호 보수 수업

김영수도서관처럼 지역 단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공시설은 커뮤니티의 거점이자 지역재생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기존의 정책 또는 사업과 차별화되는 전환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김영수도서관은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모델’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운영보조와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해 나아감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봉사하는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곳이 되고 있다.

앞으로 김영수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

박석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공공건축 기획업무 수행 현황 분석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 곧 1년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 얼마만큼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관련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의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을 활용하여 건축기획 수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지역특성, 부지특성, 예산항목에서부터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계획까지 총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관별·용도별·사업규모별로 기획 수행 여부를 살펴보았다. 건축기획의 수행 여부는 기본계획,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기획보고서, TFT 운영, 전문가 자문 등 관련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6월 23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법정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한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획 내용 및 분석항목 구분

법 제22조의 2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 및 분석 항목 구분	지역특성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부지특성
	3. 디자인관리방안		규모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예산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시행령 제19조의 2	1. 주변 유사시설·유류시설과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설계 용역 발주방식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향후 일정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사업관리체계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배치계획의 주안점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방안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현황 분석 과정과 결과

총 557건의 사업에서 건축기획 수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건축기획의 수행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의 28.7%(160건)가 건축기획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1.3%(397건)가 건축기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 건축기획 수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40.0%)과 지자체(기초·37.7%) 순으로 건축기획 수행비율 높았으며, 지자체(교육청·2.7%)와 국가(13.5%) 순으로 수행비율이 낮았다. 발주기관별로 많게는 37.3%까지 기획 수행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건축물 주용도별로 건축기획 수행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공동주택,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평균(28.7%)보다 높았으며 ▲평균보다 낮은 시설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이었다. 또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은 건축기획을 평균보다 못 미치게 수행하였다. 설계비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16.3%가 건축기획을 수행하였으나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50.0%가 건축기획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개략 분석 이외에 얼마만큼 건축기획을 구체적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건축기획과 관련된 기본

발주기관별 건축기획 수행비율

발주기관	건축기획 수행		건축기획 미수행		총 사업 수
	(건)	(비율)	(건)	(비율)	
공공기관	11	20.8%	42	79.2%	53
국가	7	13.5%	45	86.5%	52
지방공기업	2	40.0%	3	60.0%	5
지자체(광역)	11	29.7%	26	70.3%	37
지자체(교육청)	2	2.7%	71	97.3%	73
지자체(기초)	127	37.7%	210	62.3%	337
합계	160	28.7%	397	71.3%	557

설계비 규모별 건축기획 수행비율

설계비 규모	건축기획 수행		건축기획 미수행		총 사업 수
	(건)	(비율)	(건)	(비율)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1	16.3%	108	83.7%	129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65	26.6%	179	73.4%	244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44	35.5%	80	64.5%	124
10억 원 이상	30	50.0%	30	50.0%	60
합계	160	28.7%	397	71.3%	557

건축물 주용도별 건축기획 수행비율

건축물 주용도	건축기획 수행		건축기획 미수행		총 사업 수
	(건)	(비율)	(건)	(비율)	
공동주택	4	33.3%	8	66.7%	12
관광휴게시설	1	50.0%	1	50.0%	2
교육연구시설	32	20.8%	122	79.2%	154
노유자시설	13	27.7%	34	72.3%	47
문화 및 집회시설	35	49.3%	36	50.7%	71
수련시설	8	44.4%	10	55.6%	18
업무시설	19	17.6%	89	82.4%	108
운동시설	32	37.2%	54	62.8%	86
운수시설	1	10.0%	9	90.0%	10
의료시설	2	20.0%	8	80.0%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33.3%	26	66.7%	39
합계	160	28.7%	397	71.3%	557

계획,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기획보고서, TFT 운영, 전문가 자문 관련 자료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건축기획을 수행한 160건의 사업을 가지고 건축기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2개로 구분한 항목을 다시 26개의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사업부지 주변 유사시설의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 시설조성에 장애가 되는 혐오 및 위험 시설 유무 확인, 시설 건립방식의 적정성 검토, 수요조사 및 사용자 규모 추정의 적정성, 공사 피해지역과 유형 검토, 공사 피해 방지 및 저감대책 수립을 지역특성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차량 진출입 여건,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의 적정성 검토, 지반 여건과 지하매설물 및 기반시설 현황조

사, 고저차와 경사도 및 일조 등 부지의 지형과 환경특성은 부지특성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건축가능용도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면적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공용면적 검토를 규모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건축기획을 수행한 16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 항목별 수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26개 세부 항목 중 평균 10.38개 항목(39.9%)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발주기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

분석 세부 항목(12개 구분, 26개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지역특성	사업부지 주변 유사시설의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
	시설조성에 장애가 되는 혐오 및 위험시설 유무 확인
	시설건립방식의 적정성 검토
	수요조사 및 사용자 규모 추정의 적정성
	공사 피해지역과 유형 검토, 방지 및 저감대책 수립
부지특성	차량진출입여건, 대중교통 및 보행접근의 적정성 검토
	지반여건, 지하매설물, 기반시설(오페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현황 조사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 및 환경특성
규모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건축가능 용도,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면적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공용면적 검토
예산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
	인테리어, 전시, 리모델링 공사의 사전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건축물에너지,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인증 대상 여부 및 목표등급 검토
	BF인증 및 CPTED 적용대상 검토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공모방식 검토
향후일정	사업기간의 적정성 검토
사업관리체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정한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설정
배치계획의 주안점	대지현황조사에 부합하는 건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향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주요 실의 기능(콘텐츠) 설정 및 조닝
	주요 실의 수용인원, 용도, 층고, 설비조건, 부속실 검토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 거점공간 / 공용공간 개방검토 등을 위한 특화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근무인원, 방문객 등 시설 이용자 유형 및 규모 검토
	운영프로그램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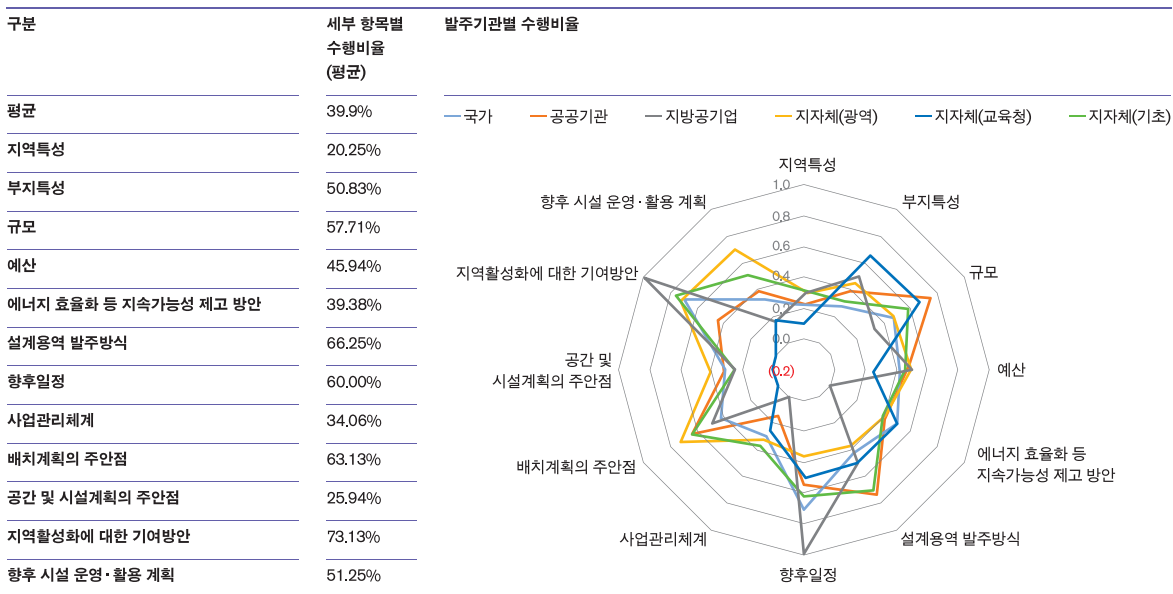
건축기획 세부 항목 수행비율

발주기관	기획수행 사업	세부 항목 수행 평균	주용도	기획수행 사업	세부 항목 수행 평균	규모	기획수행 사업	세부 항목 수행 평균
	(건)	(총 26건 중)		(건)	(총 26건 중)		(건)	(총 26건 중)
공공기관	11	10(38.4%)	공동주택	4	10(38.4%)	1~2억 원 미만	21	8.2(31.5%)
국가	7	9(34.6%)	관광휴게시설	1	5(19.2%)	2~5억 원 미만	65	9.4(36.1%)
지방공기업	2	8(30.7%)	교육연구시설	32	10.5(40.3%)	5~10억 원 미만	44	11.6(44.6%)
지자체 (광역)	11	11.36(43.6%)	노유자시설	13	12.23(47.0%)	10억 원 이상	30	12.3(47.3%)
지자체 (교육청)	2	8(30.7%)	문화 및 집회시설	35	10.25(39.4%)	합계	160	10.38(39.9%)
지자체 (기초)	127	10.48(40.3%)	수련시설	8	11.25(43.2%)			
합계	160	10.38(39.9%)	업무시설	19	10.36(39.8%)			
			운동시설	32	10(38.4%)			
			운수시설	1	17(65.3%)			
			의료시설	2	9(34.6%)			
			제1종 근생	13	9.23(35.5%)			
			합계	160	10.38(39.9%)			

았을 때 지자체(광역) 11.36개(43.6%), 지자체(기초) 10.48개(40.3%) 순으로 건축기획의 세부 항목별 수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용도별로 보았을 때는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순으로 건축기획의 세부 항목별 수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설계용역비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 11.6개(44.6%),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12.3개(47.3%)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비 규모가 커질수록 세부 항목별 수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수행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73.13%), 설계용역 발주방식(66.25%), 배치계획의 주안점(63.13%), 향후일정(60.00%) 순으로 세부 항목의 수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특성(20.25%),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25.9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39.38%) 순으로 세부 항목의 수행비율이 낮았다. 이는 공공건축사업 기획 시 유사시설 중복 여부나 건립방식의 적정성, 수요조사 및 사용자 규모 추정을 비롯하여 주요설의 기능설정 및 조닝방향과 세부시설의 수용인원, 용도, 층고, 설비조건, 부속실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별 수행 비율(12개 구분, 26개 세부 항목)



기관별로 세부 항목별 수행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특성과 예산,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항목은 기관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행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계획, 향후일정계획 항목은 기관별로 수행비율이 많이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규모, 설계공모방식 항목에 대한 검토는 면밀하게 수행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과 사업관리체계,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은 미흡하게 고려하였다. ▲국가사업의 경우 일정계획은 면밀하게 고려한 편이나 향후 시설운영·활용계획과 규모,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고려하였다. ▲지자체(광역) 사업의 경우 향후 시설운영·활용계획과 배치계획의 주안점,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항목은 면밀하게 고려하였으나 일정계획이나 적합한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지자체(기초)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체계, 설계공모방식,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향후 시설운영·활용계획 항목은 면밀하게 고려하였으나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은 미흡하게 고려하였다.

기획업무 수행 여건 분석에 따른 시사점

2020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축기획 업무 수행비용이 전체 사업에서 30% 미만이며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기초)보다 지자체(교육청)와 국가사업의 건축기획 수행비용이 많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나 국가보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전담인력과 조직의 구축 여건이 좋지 못한 형편이나 건축기획 업무 수행이 높게 나온 것은 다수의 사업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다 높은 건축기획 수행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 전담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외부 용역 의뢰에 필요한 관련 예산, 기간, 전문업체에 대한 기준과 작업 여건이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건축물 주용도로 보았을 때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등 많이 조성하는 시설 유형이 오히려 건축기획의 수행비용이 낮았는데, 청사 건물이나 학교·연구소 등 사업의 당위성에 이견이 적은 사업일수록 반대로 건축기획은 간소하게 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청사·학교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인 경우 이용자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박석환 외 2018, p.8)이 더욱 크므로 건축기획이 타 시설보다 면밀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시설이지만 이런 시설일수록 건축기획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26개 세부 항목 중 지역특성,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고려되고 있으므로 건축기획업무 수행 시 이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획업무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건축기획업무를 면밀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향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0% 미만에 머물러 있는 건축기획업무 수행비용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건축기획업무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획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시행령에는 11개 항목에 대한 나열만 되어 있을

뿐 항목별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 제6항에 근거하여 고시를 통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 자료 등 건축기획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기획업무 수행주체 및 비용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획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외부 전문 인력의 도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건축기획업무의 포괄적인 범위를 감안하였을 때 건축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공간기획자, 운영자, 엔지니어링 부분의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기획업무 수행주체를 다각화하거나 관련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범위로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도 단순히 건축사 대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보다 복합적이며 실비를 반영한 비용산출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기획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므로 제도 운영에 따른 실질효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제도를 고도화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PBS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과 영국(Key Performance Indicator) 등 해외의 경우 체계적인 예비 기획체계를 활용하여 건축기획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임현성의 2012, p.27)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축기획 수행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건축기획업무 수행 사례에 대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실증적 차원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임현성, 김영현. (2012).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김은희, 서수정, 송선영. (2017). 건축기획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 박석환, 엄운진, 변나향. (2018).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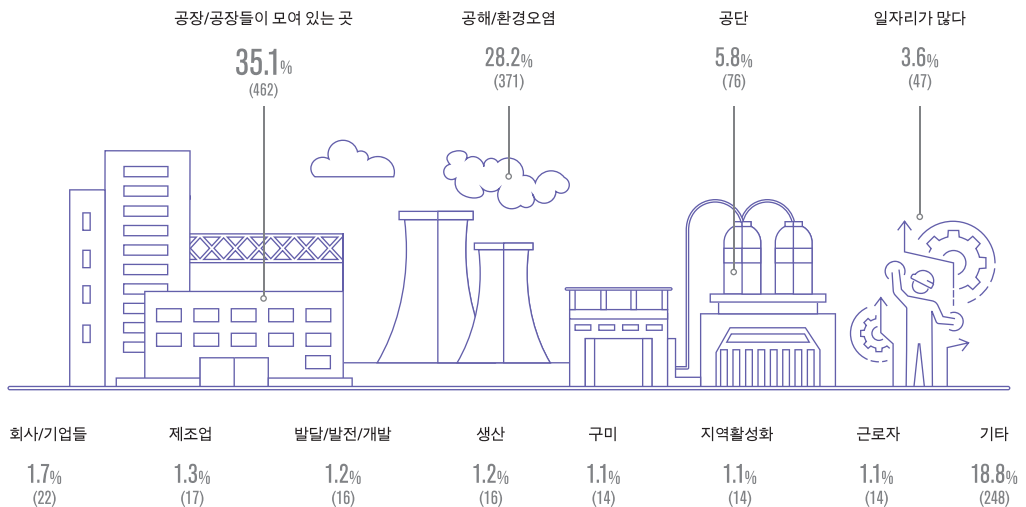
국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일반 국민의 산업단지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일반 국민은 산업단지가 다수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 20곳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9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이뤄졌다.

Q '산업단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복수응답



A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모여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

일반 국민들은 산업단지를 '공장 또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비율(35.1%)이 높았다. '매연', '연기', '소음', '미세먼지', '오염' 등 '공해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역이라는 인식(28.2%)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가 많다', '회사/기업들', '제조업', '생산', '지역활성화' 등 국민들은 환경오염을 제외하면 산업단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살고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미치는 영향은?

■ 1순위 ■ 1+2순위 종합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64%

다소 긍정적
+
매우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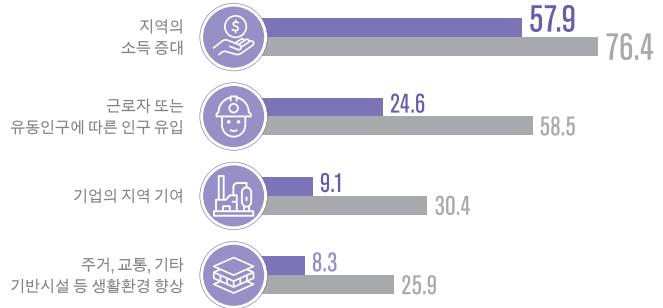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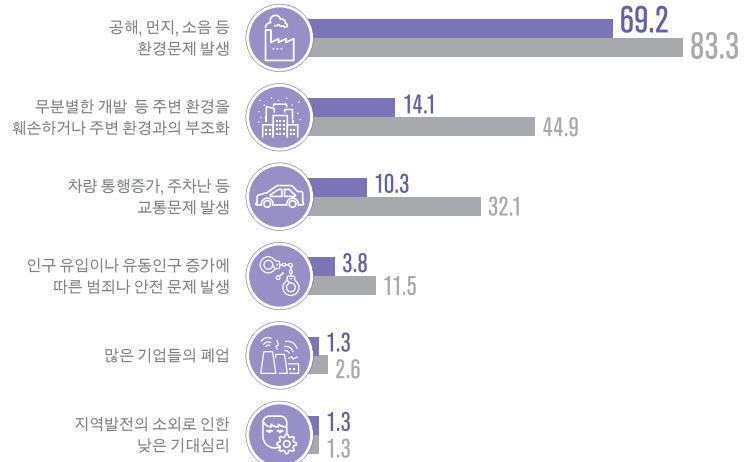
다소 부정적
+
매우 부정적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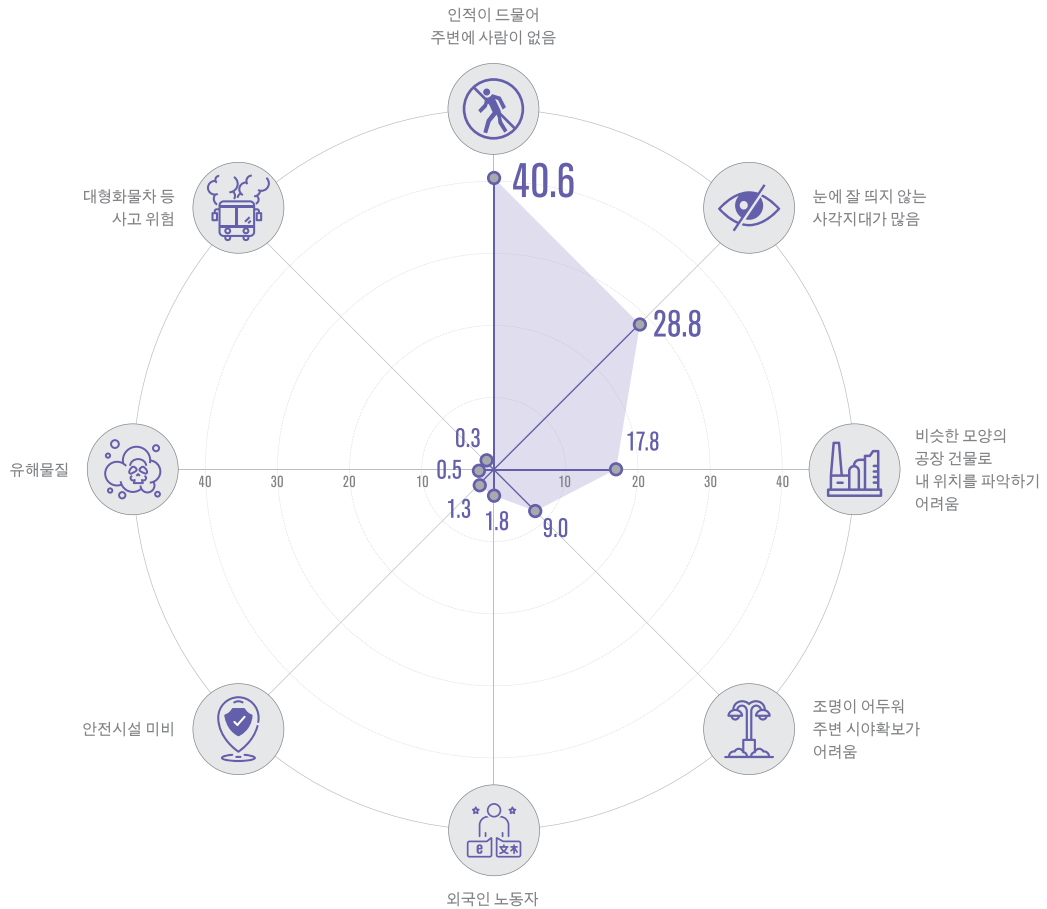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요인



A 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함

일반 국민들은 산업단지가 '지역의 소득증대', '인구 증가', '기업의 지역 기여', '생활환경 향상'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6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환경문제', '무분별한 개발', '교통문제' 등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36%)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거주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자리해 있는 경우 환경문제(87.5%)를 산업단지의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Q 어떤 환경적 요인이 산업단지의 범죄 및 안전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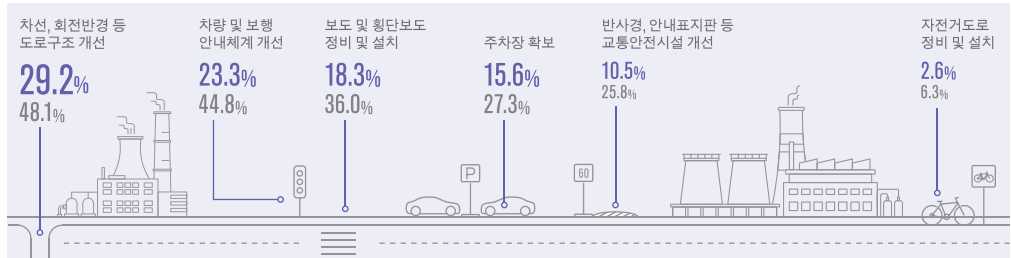
A 드문 보행자, 관리되지 않는 산업단지 경관이 범죄 및 안전사고 불안감을 유발함

산업단지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의 48.8%는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안함을 느낀 이유로 '인적이 드물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4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음'(28.8%)과 '비슷한 모양의 공장 건물로 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17.8%) 역시 불안감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불안함을 느끼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공간환경 특성에 따라 불안함을 느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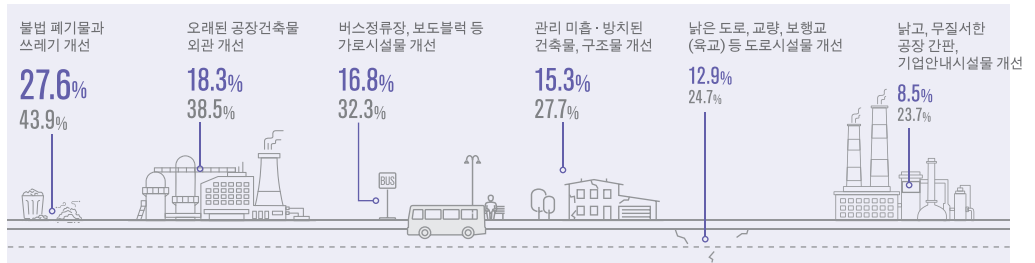
Q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 1순위 ■ 1+2순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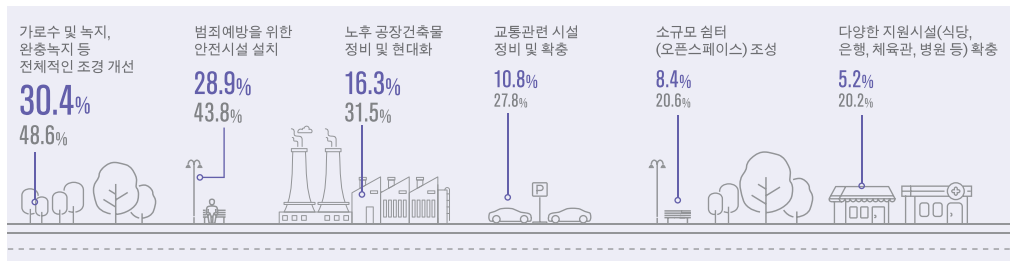
산업단지 도로 및 가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 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의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A 산업단지 통행 차량에 맞는 도로구조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후 건물 주변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일반 국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등 산업단지 통행 차량의 특성에 맞는 '도로구조 개선'(29.2%)이 시급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및 쓰레기 개선'(27.6%)과 '오래된 공장건축물의 외관 개선'(18.3%)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조경 개선'(30.4%)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28.9%)가 안전한 산업단지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39

Autumn 2020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코로나 19 이후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을 적용, 거리 계획을 추진 중인 런던시의 상황을 조명해본다. 파리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기존의 도로체계를 전면 재편하려는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이 발표됐다. 한편 시카고시에서는 노후건축물을 관리하고 재생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국내동향으로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성과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살펴본다. 더불어 주택과 골목길을 함께 정비하는 동네행복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이 가져올 효과를 예측해본다.

파크레인(Park Lane) 임시 자전거 전용 도로



컴포트 스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모습



삼각지 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해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런던의 거리 계획
058

파리의 벨로폴리탄
정책을 통한
도로 개혁 시도
063

시카고의 도시
노후 건축물
관리·재활용 방안
068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
072

‘동네행복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방안
07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런던의 거리 계획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여 어떻게 도시공간이 변화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런던시는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을 적용한 거리 계획 정책을 입시 자전거 전용 도로, 주거지역 거리, 중심시가 지 거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적용하였다.

파리의 벨로폴리탄 정책을 통한 도로 개혁 시도 | 파리는 지하철 노선을 그대로 지상으로 가져와 자전거 길로 만드는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을 발표했다. ‘친환경’ 관점에서 시작한 이 정책은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출퇴근 시 집단 이동을 꺼리고 개인 이동을 선호하게 된 시민들에게 꽤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생겨나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자유롭게 변형·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다.

시카고의 도시 노후 건축물 관리·재활용 방안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카고시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시민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간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협업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 | 도시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영주시는 이 제도를 빠르게 채택하여 공공건축상을 휩쓸었다. 영주시가 거둔 성과를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현재와 이 제도가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동네행복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방안 | 주거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하여 골목과 마을 단위로 노후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집수리를 위해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고, 초기부터 완료 이후까지 관리되기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런던의 거리 계획

김상희
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들어가며: 코로나의 충격과 차 없는 거리의 경험

코로나19는 영국에 4만 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왔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일상생활은 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여 어떻게 도시공간이 변화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혹은 도시 간에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며 도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동 및 외부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록다운(Lockdown)은 한편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경험할 수 있던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자동차가 통제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60% 감소했지만, 매연이나 소음이 없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70% 정도 증가하였다. 게다가 운동, 쇼핑,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 등하교, 학교의 옥외 활동, 전시 이벤트 등 내부 공간에서 행해지던 일상 활동이 거리로 확장되면서 거리공간의 수용력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한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과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 런던시 거리 계획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거리공간 계획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런던시 거리 전략의 변화

런던시에서는 2000년대 누구나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공간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공공공간의 80%를 차지하는 거리에서 자동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접근성과 연계성의 문제를 회복하고 질 높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디자인과 관리를 통해 형성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한편

으로는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거나 민간 개발로 레저·소비 등 방문객을 위한 공간 투자에 치중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런던시 정부는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비교적 같은 방향을 유지하여 왔으며,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공공 부문과 커뮤니티가 노력하여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Carmona et al. 2019).

2016년 사딕 칸(Sadiq Kahn)의 노동당 정부는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좋은 성장(Good Growth)’,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의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접근 방향을 내세웠다. 2016년 파리조약 이후에 기후변화가 당면 과제가 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개발 계획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걷거나 머무르는 공간이 우선하도록 ‘런던플랜(London Plan)’에 제도화하였으며, 거리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전략, 환경 전략, 그린 인프라 전략에 연계하였다.

거리 전략인 ‘런던을 위한 건강한 거리(Healthy Streets for London, 런던 교통국 2017a)’는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차를 최소화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쇼핑하고 머물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비전과 10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실제적 프로세스 및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선으로 ‘거리경관 가이드선(Streetscape Guidance, 런던 교통국 2019)’와 ‘보행 수법 계획(The Planning for Walking Toolkit, 런던 교통국 2020)’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수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하고 한시적인 테스트 후에 영구적으로 전환하는 택티컬 어버니즘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 페스티벌을 벌이

거나 주차장을 카페 테라스와 연주회 장소 또는 놀이터로 사용하고, 포켓파크와 나무 심기 등을 기획해 왔다(런던 교통국 2017b).

택티컬 어버니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리 계획과 유형별 수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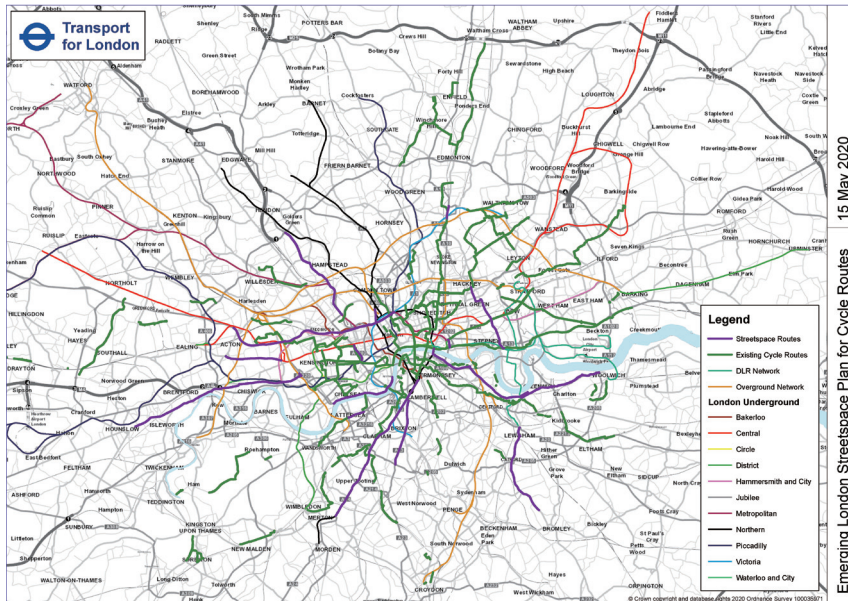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록다운을 단계별로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을 기존의 20%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사용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20억 파운드(약 3조 479억 원)를 배정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응하고 자전거와 도보에 적합한 거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런던시는 ‘런던 거리공간 계획(London Streetspace Plan, 런던 교통국 2020a)’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거리공간을 임시 자전거 전용 도로, 주거지역 거리, 중심시가지 거리 총 세 가



브릭스톤(Brixton) 버스 정거장 확장



파크레인(Park Lane) 임시 자전거 전용 도로
출처: 런던 교통국



기존의 네트워크에 추가되는
거리공간(보라색)의 계획
출처: 런던 교통국, tfl.gov.uk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치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시 자전거 전용 도로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수용력이 줄어들면서 전동 스
쿠터나 자전거를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대
중교통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거리 두기를 위해 자
전거 도로와 보행로 폭을 임시로 확대하고, 대중교
통의 이용이 많은 구간이나 자동차 이용이 많아 자전
거 도로를 만들 수 없던 도로에 임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기존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였다.
전동 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계획
이 급진전하면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런던 교통국에서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의 보급·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역 거리

차량 이용을 줄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내 교통량 낮추기
(Low Traffic Neighbourhoods)’에 중점을 두고 있



마을 내 교통량 낮추기 사례
출처: hackney.gov.uk



학교 거리 계획 사례
출처: 런던 교통국(2020c)

다. 특히 차량 혼잡을 막고 도보와 자전거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거리에서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학교 거리 계획(School Street Schemes)’을 확대하였다. 자치구 별로 사업을 수립하고 선정된 학교 및 학부모들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거리

지역 내 상업 지역을 따라 걸어서 쇼핑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형성하여 상점이나 카페·식당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 규모, 인접 건물 용도,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에 따라 보행로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량 이용을 일부 제한하거나 전용 보행로로 지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공간에 녹지공간이나 테

이블을 배치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지역 내 중심시가지 거리를 대상으로 도보·차량·상업활동이 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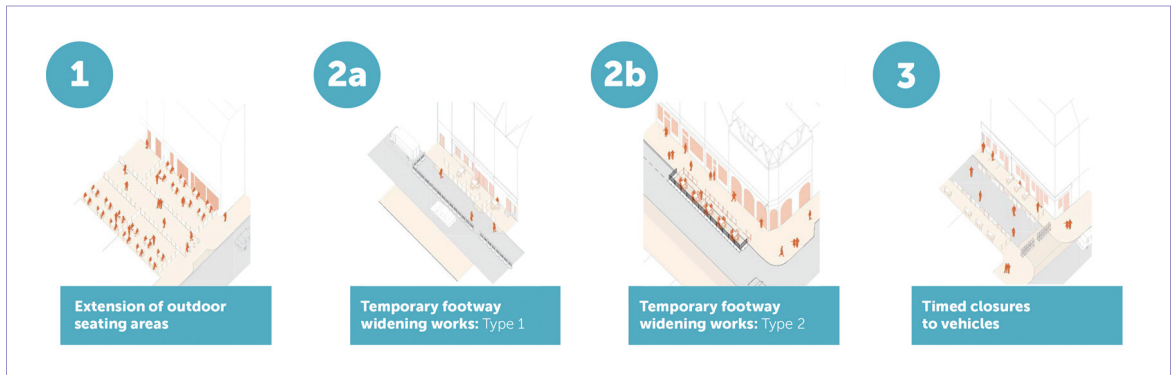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들은 페인트, 볼라드, 간판, 플란터, 카메라, 교통 통제기 등을 사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리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자전거나 보행, 차량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도시나 지역 차원의 거리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룬 시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 데다 1년 이내에 컨설팅을 거쳐 영구적인 수법으로 전환될 계획이므로 디지털 도구 등 커뮤니티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여러 요구에 대응할



퍼트니(Putney) 주차녹지공간(parklet)
출처: wandsworth.gov.uk



해머스미스(Hammersmith) 주차녹지공간(parklet)
출처: lbhf.gov.uk



웨스트민스터 중심시가지 거리 계획의 일부
출처: 웨스트민스터 구청(2020)

수 있는 자재나 기술 개발, 기존 주차 시설을 재활용하는 레트로피팅(Retrofitting) 수법, 자치구 경계를 초월한 자전거 시설 및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시사점: 15분 지역생활권(15minute neighbourhoods)으로 나아가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리 계획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건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살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지역경제활동을 도우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지공간 확충을 목표로 하는 기존 계획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 이용자와의 공간 경쟁이다.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민 설득의 문제, 비용 문제, 자치구 간의 경계 문제 등 커뮤니티 참여나 공간 디자인과 운영 및 관리에 관계된 걸림돌이 많다. 런던의 현재 사업은 공중위생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 회복을 위한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여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자전거를 구매한 사람이 8% 늘어난 반면 차량 이용도 이미 22%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런던시가 서울을 포함한 세계 40개 도시와 함께 15분 지역생활권(15minute Neighbourhoods)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런던 거리공간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GLA 2020). 파리에서 제안된 15분 지역생활권은 자전거나 스쿠터로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개념으로, 런던시에서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큰 대도시에서도 사무나 상업활동이 집중된 도심 시가지(City Centre)보다는 주거 밀도가

높은 도시 외각의 마을 시가지(Town Centre)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조심스러워지는 가운데 거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와 스쿠터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나 이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 차원에서 15분 지역생활권을 목표로 변화가 필요한 곳에 한시적인 택티컬 수법을 적용하여 가변적·한시적 계획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법이 효과적이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이 요구하는 변화된 기능에 맞추어 거리를 유형화하는 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가이드스가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Carmona, M., Hanssen, Gro S., Lamm, B., Nylund, K., Saglie, I. & Tietjen, A. (2019). *Public space in an age of austerity*, *Urban Design International*. 24, 241-259.
- 2 Street toolkit. 런던 교통국. <https://tfl.gov.uk/corporate/publications-and-reports/streets-toolkit>(검색일: 2020.8.)
- 3 런던 교통국. (2017a). *Healthy Streets for London: Prioritising walking, cycling and public transport to create a healthy city*.
- 4 런던 교통국. (2017b). *Small Change, Big Impact: A practical guide to changing London's public spaces, Delivering the Healthy Streets Approach*.
- 5 런던 교통국. (2019). *Streetscape Guidance*.
- 6 런던 교통국. (2020a). *London Streetspace Plan – Interim Guidance to Boroughs*.
- 7 런던 교통국. (2020b). *The Planning for Walking Toolkit: Too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ublic realm briefs in London*.
- 8 런던 교통국. (2020c). *Streetspace for London supplementary guidance on School Streets*.
- 9 런던 교통국. (2020d). *Streetspace for London supplementary guidance on Low Traffic Neighbourhoods*.
- 10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20). *Mayor's Question Time*. <https://www.london.gov.uk/mayors-question-time-2020-07-16>(검색일: 2020.8.)
- 11 웨스트민스터 구청. (2020). *hospitality and business guidance*.

파리의 벨로폴리탄 정책을 통한 도로 개혁 시도

유무종

프랑스 도시설계사·건축가,
파트릭 코다 건축사무소 재직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벨리브(Vélib)^{*}는 에펠탑·바게트와 더불어 파리의 대표 상징으로, 많은 시민과 더불어 관광객도 이용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 자전거 시스템이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에서 벨리브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 가입자가 29만 명이 되었고, 분당 75대 이상, 초당 1회 이상 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로 인해 벨리브를 구성하는 모든 것(손잡이에 달린 바구니, 편안한 안장 및 사용의 편의성)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지금까지 벨리브는 파리 시민들의 습관을 바꾸어 파리지앵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친환경 도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상기온으로 나타나는 여러 환경오염의 징후들이 더 이상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도시마다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이를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과감한 정책을 들고나왔다. 벨로폴리탄(Vélopolitain)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파리시 지하철 노선을 그대로 지상으로 가져와 자전거길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름은 메트로폴리탄(métropolitain, 지하철)과 같은 맥락에서 붙여졌다.

환경에 앞서 생각한 시민의 편의

파리의 도시면적은 서울의 6분의 1이다. 지하철 제도만 있어도 도시를 확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하철 노선이 도시의 형태를 따라 꽤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역마다 볼 수 있는 관광명소를 이정표 삼으면 쉽게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Vélo en libre-service의 약자로, 2007년 여름에 시작한 파리의 자전거 시스템이다. 2009년에 교외 지역의 약 30개 지자체에 2만 대의 자전거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익히기 쉬운 이 지하철 노선이 그대로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예를 들어 에펠탑에서 개선문까지 가는 데 놓치는 풍경이 하나도 없다. 자전거를 타고 원하는 시간에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열차를 기다리거나 이에 맞춰 서두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적은 힘으로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벨리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오염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동의 자유(34%), 속도(22%), 여가(18%), 건강(10%) 순으로 사용동기를 갖는다(Razemon 2016). 편의성과 실용성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동기로 자전거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적 동기가 모여 도시 측면에서는 환경보호가 된다는 집단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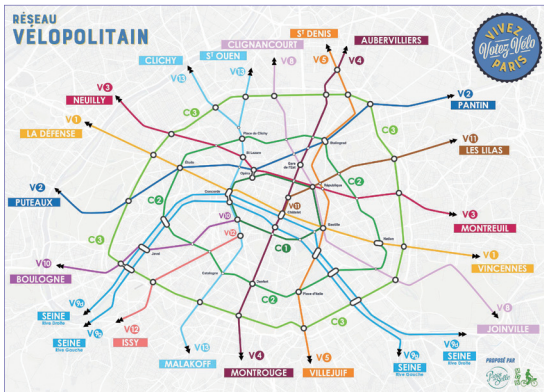
벨로폴리탄은 이런 자전거 이용의 장점을 살려 자동차의 수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파리의 정책 중 하나이다. 친환경 정책으로 시작한 이 정책은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출퇴근 시 집단이동을 꺼리고 개인이동을 선호하게 된 파리 시민들에게 꽤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수를 늘려 나가고, 전기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도 하였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통한 도로 개혁

벨로폴리탄의 또 다른 목표는 전면적 도로 개편이다. 기존의 도로가 유통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였다면, 벨로폴리탄이 그리는 새로운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우선의 도로이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 한쪽에 페인트로 그려 놓는 모습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서로 다른 공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로 개편을 통해 도심에 2차 순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량이 줄고 개인이동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 중이다.

* 벨리브는 기존 JC Decaux에서 2017년 말 Smovengo로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된다. 녹색으로 된 기존의 벨리브 자전거와 파란색의 전기자전거 두 종류로 나뉘며, 전기자전거는 벨리브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 ecycle.fr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9년 12월 이후부터 자전거를 산 파리시민(일드프랑스 지역만 해당)에 한하여 최대 500유로(약 7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을 받기 위한 자전거 종류와 자격이 따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서와 신분증·계좌번호를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벨로폴리탄 도로망과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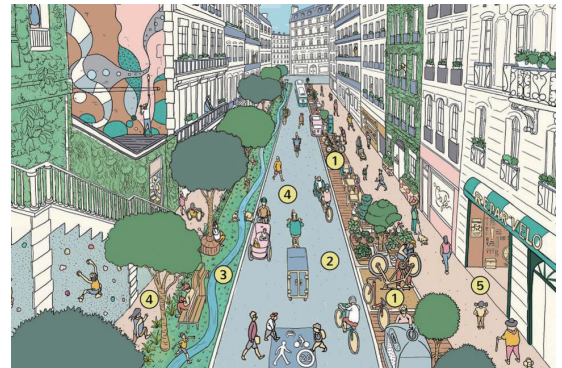
출처: (상)<https://votex-velo.paris/un-velopolitain-pour-paris/>
(하)<https://planparis360.fr/plan-metro-paris>

이렇게 도로를 보수할 때 무엇보다 자전거 도로에 연속성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영역표시, 교차로 진입 시 사라지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면서 상호 연결이 되고 자전거가 우선순위를 갖는 경로를 도심 가운데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개편되는 도로는 170km의 연속적 자전거 경로,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경사로 그리고 고속 자전거 네트워크(고속 자전거 도로)를 통합하여 파리 시내와 외곽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파리시의 교통계획은 자동차 보급이 급증한 197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언제나 교통계획은 차량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도로를 놓을 때 작은 주거거리*를 지름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들이 도심을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벨로폴리탄 정책이 실행되면서 도로는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위주로 넘어갔다. 도로도 기존에 자동차길로 쓰이던, 좁은 주거거리를 보행자 위주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꾸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도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경로를 제공하는 'Waze'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주거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파리



현재 안내선으로 이루어진 벨로폴리탄 계획 도로



앞으로 만들어질 벨로폴리탄 도로 계획도

출처: <https://micromobiliteit.nl/2020/01/paris-plan-15minu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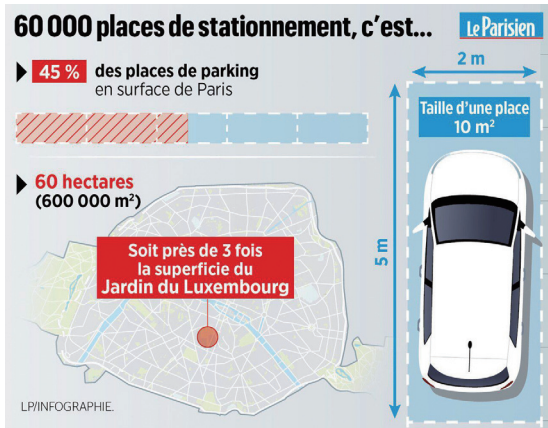
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동 시 자전거를 많이 사용), 택시를 위한 영역구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 서비스를 유지하며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시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형·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다.

인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 안에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녹지를 넣어 주면

* 프랑스의 거리는 크기와 나무가 놓인 상태 순으로 'boulevard', 'avenue', 'rue'로 나뉜다. 여기서 주거거리는 'rue'를 지칭하고, 이 거리의 특징은 가로수는 없고 주거건물로 둘러싸인 골목길처럼 폭이 좁다는 점이다. 또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벨로폴리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안내판: 지하철 호선과 같은 색상(4호선 보라색, 1호선 노란색), 같은 방향으로 계획



지상 갓길 주차장을 없앤 후 얻게 되는 면적의 크기
출처: <https://votex-velo.paris/un-velopolitain-pour-paris>

도심 속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이 된다. 실제로 파리시는 갓길에 있는 지상 주차장의 수(약 6만 개)를 줄이면 룩셈부르크 공원의 3배에 가까운 면적(약 60만m²)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동시에 도심 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자전거 도난이 심각한 문제인 파리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시는 도난 방지를 위한 '벨로박스'를 각 주차장소에 설치하고 앱 가입과 디지털 코드로 보안을 유지한다. 또 횡단보

도 주변에 주차 이정표를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사점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도시디자인을 하는 AUPL(Architecture Urban policy Lab)은 파리의 벨로폴리탄을 바탕으로 부산시 남구에 적용 사례를 만들었다. 개발을 앞둔 두 지역을 선정한 후 두 지역을 잇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도로로 바꾸어 도심에 부족한 녹지와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통한 저류시설로 빗물을 유입시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날이 더워도 바람은 찬 고온건조의 프랑스 여름과 달리 덥고 습한 고온다습의 우리나라 여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전에 없던 폭우와 심각한 장마 피해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 도시의 크기도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생활 범위나 출퇴근 거리 등의 비교가 어렵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생활권을 좁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55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는 우리나라의 형편상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보관을 위한 벨로박스
출처: <https://votex-velo.paris/park-ton-bike/>



횡단보도 주변 자전거 주차장
출처: <https://votex-velo.paris/park-ton-bike/>



부산시 남구 우암거리에 벨로폴리탄 도로를 적용한 사례

그런데도 이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간단 명료하다. 바로 도시 정책의 시작은 도시민의 편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파리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벨로폴리탄은 최근 코로나19나 환경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시도에서 나오는 도시 거리의 형태나 디자인이 도시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생각하게 한다. 벨로폴리탄 계획은 유행성 슬로건인 ‘환경의 회복’이나 ‘친환경 도시’를 내세우기 이전에 도시민의 편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넓은 범위로 ‘자연과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 파리 시장 안 이달고 또한 최근 재선 캠페인에서 ‘15분 도시’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는 도시 내 차량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며 각 구역의 생활권을 15분 반경 이내로 시민들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 1 Mairie de paris. (2015). Livre blanc de l'économie circulaire du grand paris.
- 2 벨로폴리탄 공식 홈페이지. <https://votex-velo.paris/>
- 3 파리지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 4 도시 자전거 및 자전거 관광 홈페이지. <https://www.citycycle.com/21157-le-velib-un-concept-francais-devenu-mondial/>
- 5 이동기술 과학 홈페이지. <https://www.lagazettedescommunes.com/505188/les-petits-secrets-du-velib-2/>
- 6 자전거 판매 및 상담 홈페이지. <https://www.ecycle.fr/>
- 7 Willsher, K. (2020). Paris mayor unveils '15-minute city' plan in re-election campaign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7/paris-mayor-unveils-15-minute-city-plan-in-re-election-campaign>
- 8 Razemon, O. (2016). Les transports à Paris en 20 chiffres. *Le Monde*. <https://www.lemonde.fr/blog/transports/2016/02/04/les-transports-a-paris-en-20-chiffres/>

시카고의 도시 노후 건축물 관리·재활용 방안

강기향

프리랜서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건축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현대 미국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를 비롯하여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과 루드비히 미스 반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등 고층 건물과 실용적인 설계로 인정받는 건축가들의 고향이자 그들의 작품이 여전히 시민들의 삶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런 시카고시는 사실 1871년 10월 8일 ‘시카고 대화재’라 불리는 27시간에 걸친 화마로 시의 대부분이 소실된 아픈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길·대로·공원을 재정비하여 계획도시로서 미국 교통의 요충지로 활약해 왔으며, 지금까지 당시 세워진 현대 건축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속 유지·보수하며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카고시는 동시에 늘어나는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시는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 상승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빈 공간, 주택 가운데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어 관리가 까다롭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리모델링이나 민간기업과의 협업 방식 등을 취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형 낙후 공간, 민간기업과 손잡고 시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카고시는 40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2019년까지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금지되었던 유니언역(Union Station)을 대형 푸드 홀로 개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해당 공간은 방치되어 있던 낙후한 공공 교통시설과 건축물로, 이를 대대적으로 개발·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유니언역 남쪽에 신축되는 50층짜리 고층 건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 BMO 파이낸셜 그룹이 입주하여 명명권(Naming Right)도 계약을 완료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대형 푸드 홀 프로젝트는 한정된 예산을 넘어 낙후된 공간을 수준 높은 시민 편의 시설로 재생시켰다. 총 1,000만 달러(약 116억 2,500만 원)가 투입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1층에 식당가 1,486.4m²와 창고 및 부대시설 464.5m²의 공간이 별도 조성될 예정으로, 1980년대 이후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유지·보수하던 예산을 없애고 도시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기업과 지역 식품업체들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푸드 홀은 시카고의 유명 명소이자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리바이벌 푸드 홀과 프렌치 마켓 등

특색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푸드 홀에서 근무할 직원의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낙후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 공간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시카고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을 함부로 해체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건축물을 유지·보수하기 힘들 경우 시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민간인과 기업에 매각할 수는 있다. 유니언역 대형 푸드 홀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 시카고 건축 설계 업체 ‘고에스크 파트너스(Goettsch Partners)’가 재개발을 진행, 현재 지역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실용적이며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영리기업과 민간사업자들이 적절한 절차로 참여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된 공공시설 보수, 시 예산 절감, 기업 영리 상승이라는 여러 이점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각화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꾸준히 온라인 시민 투표, 담론회, 투명한 과정 공개 등 시도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준다.

하얏트 가문의 유산 상속자 페니 프리츠커,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 트로버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카고시의 낙후 건축물인 유니언역 과거 전경

출처: 시카고 유니언역 공식 홈페이지. <https://chicagounionstation.com>



유니언역 재개발 계획

프리츠커 트로버트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투자 방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시카고시와 비영리 재단이 진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페니 프리츠커는 현 일리노이주 주지사의 친누나로, 시카고시의 고질적인 낙후 건물과 부동산의 문제를 간파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영리기업 프로젝트 공모 후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시민들의 동의하에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프라이즈’ 프로젝트는 시카고의 가장 큰 문제인 인종 간의 분리, 빈부 격차, 치안 문제 등 낙후 시설 관리가 더욱 미비한 저소득 저개발 지역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며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강화, 주민 경제 활성화, 임대주택 설립,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상위 목표로 둔다. 민간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사회적 기여, 이미지 상승,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시세 차익,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익 등을 기대한다. 이러한 이점은 시카고시, 지역 시민, 민간기업 업자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시카고시는 현 거주민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호하며 프로젝트를 꼼꼼히 살피는 가운데 진행한다.

도심 속 작은 낙후 건축물, 시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카고시는 민간기업들의 거대 자금을 유입할 필요가 없는 도시 내 작은 낙후 건축물이나 공간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재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소득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계층화가 심해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문턱이 낮은 시민 공간을 만들며 장기적으로 도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업을 진행한다.

한 예로, 실업률이 30%가 넘는 흑인밀집구역 우드론의 지역 문화센터 ‘익스퍼리멘탈 스테이션(Experimental Station)’은 저사용 건물과 공터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예술 워크숍,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확한 재료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8~18세 청소년들은 무료로 자전거 수리 기술 실습과 교육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해당 낙후 건물과 공간이 문화센터로 탈바꿈한 이후 지역사회 결속력 상승과 치안 개선의 효과는 물론 유지·보수 역시 지역 주민 봉사자들의 노력 덕에 한결 수월해졌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공간 제공은 저소득층들뿐만 아니라 지역 분위기를 바꾸고 랜드마크를 창출해 내는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시카고시의 이러한 자체적 ‘낙후 건축물 공간 개선’은 도시 곳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운타운 외곽지역 로건 스퀘어는 시카고시에서 문화·예술의 유행을 선도하는 동네로 잘 알려져 2030세대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인기 지역 중 하나이다. 시는 로건 스퀘어 지역의 저사용 낙후 빌딩과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낸다. 또한 영화 상영과 워크숍, 단체행사, 토크쇼, 콘서트를 진행함으로써 로건 스퀘어의 지역 분위기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 시카고시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건 스퀘어 안에서도 1920년대 시카고 공원에 지어진 휴게 시설 ‘컴포트 스테이션(Comfort Station)’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100년의 역



컴포트 스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모습

출처: 시카고 컴포트 스테이션 홈페이지. <https://comfortstationlogansquare.org/>

사를 가진 이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예술활동을 하는 지역 공동체들에 대여함으로써 ‘동네 사랑방’으로 성장하였다.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화제가 되자 봉 감독의 초기 작품들이 컴포트 스테이션에서 상영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료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시 낙후 건축물 재활용 시사점

시카고시의 낙후 건축물 개발은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보존하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색과 시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낙후 건축물과 공간의 규모, 프로젝트의 예산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하며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비영리 재단, 영리 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후속 관리 및 사회복지 기능도 충실히 진행하며 시 정부로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도 낙후 건축물을 관리하고 재생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낙원상가와 부산

의 감천문화마을 등은 오랜 역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가꾸어 온 생활 터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공간의 안전성을 높인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카고시가 장기간 낙후 건축물 및 공간 재개발을 진행하며 발전시켜 온 정책, 시에서 강경하게 유지하는 프로젝트 투명성, 다양한 단체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점 등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며, 지자체에서 저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빠른 적용과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시카고 유니언역 공식 홈페이지. <https://chicagounionstation.com>
- 2 시카고 컴포트 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https://comfortstationlogansquare.org/>

민간전문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기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장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건축 선진 도시로 이름이 높은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도시들은 행정적 실행력을 가진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로, 공원, 광장 등 공간환경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전문가 제도는 국가나 도시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의 문화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 우리가 마냥 부러워하는 유럽 도시건축의 비결이 바로 민간전문가 제도에 담겨 있다.

우리는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상북도 영주시가 2010년에 민간전문가 제도로 ‘디자인관리단장’을 위촉하였으며, 서울시는 2016년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였다. 물론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시건축의 경쟁력을 높이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에 노력하는 이유는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키워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확산

법적 근거 마련 후 모든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증거가 바로 총괄건축가 위촉 현황이다. 2018년까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영주시와 서울특별시에 불과하였다. 본격적인 확산은 2018년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승효상 위원장은 광역시장과 도시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이후 2019년 부산을 필두로 광역시·도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기초지자체도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지

광역시·도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지역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서울	승효상(초대), 김영준(2대), 김승희(3대)	265명
부산	김인철(초대)	78명
인천	-	50명
광주	함인선(초대)	24명
대전	이성관(초대)	49명
충남	제해성(초대)	63명
전북	윤충열(초대)	20명
전남	손승광(초대)	모집 중
경북	배병길(초대)	-
경남	민현식(초대)	24명
제주	김용미(초대)	34명

역별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trend/page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총괄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역 단위 총괄건축가와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례회의는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별 공무원과 건축가들이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의 역할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엮어 책자를 발간하였다. 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총괄건축가 운영비 지원사업과 함께 총괄건축가의 역할·업무·지위·권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 단계에서 발견되는 성과와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통한 성과는 서울시가 단연

현황

구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광역시	기초(기타)	광역시	기초
서울특별시	1	2	265	23

서울특별시

명칭	지역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시기	임기
	광역시	기초	성명	소속		
총괄건축가	서울특별시		김승희	서울대학교	2019.01.	2년
지역총괄계획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대문	해피디자이너즈 건축사무소	2015	1년
총괄건축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경근	해피디자이너즈 건축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강승현	스튜디오인로코 (StudioInLoCo)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장병은	건축사무소 예브리아키텍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강계용	이태아키텍츠 건축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강진구	아이엠에이 (IMA) 건축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백은선	이메스건축이벤트 건축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구선주	구우 건축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국형필	이화여자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권영은	오피스 경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특별시		권종규	건축사무소 도시건축집단	2020.01.	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서울)

으뜸이다. 그간의 성과를 여러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서울시가 발간한 우수 공공건축 자료집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좋은 공공건축을 통해 동네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민간전문가 운영 과정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도 높고 전문가들도 많아 모든 지자체의 선도 사례가 되기는 어렵다. 수많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재정 자립도나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 성과에 비하면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영주시는 ‘디자인관리단’을 신설하고 지금의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디자인관리단의 단장을 위촉하였다. 이후 총괄건축가의 전문성이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어우러지면서 영주시의 공공건축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영주시의 성과는 그동안 받은 건축상, 영주시가 확보한 정부지원 사업비 그리고 영주를 방문하는 전문가의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영주시 공

영주시가 선정된 중앙부처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선도사업 등
행정안전부	명품희망마을 시범사업,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공건축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문화대상, 공공디자인, 농어촌건축, 김수근 프리뷰, 공공건축상 등 건축상*을 휩쓸어 왔다. 8개의 공공건축물이 그 2배가 되는 16개의 상을 받았다. 오죽하면 영주시가 공공건축상을 독점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영주시의 수상실적은 영주시와 건축가가 공공건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조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음은 중앙부처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이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중앙부처와 도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약 860억 원 확보하였다. 민간전문가가 마련한 도시건축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 유명세이다.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가들의 방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영주시의 공공건축 선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 3월 영주시를 방문하였다. 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시의 공공건축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전문가들이 2019년 기준 2,0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영주시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서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하였을까? 영주시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각종 도시 및 경관 관련 계획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종 공간환경 개선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영주시 총괄건축가는 ‘도시·건축·공공 공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개별 공공사업을 장소 단위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계획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리조정 절차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 예산 확정 전에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과 사업에 적절한 발주방식을 제안하면서 설계를 잘하는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나서 장소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이나 사업의 통합·연계·조정 역할을 하였다. 특정 지역에 여러 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었는데, 총괄건축가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영주시의 대표적인 성과가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사진이다. 삼면이 철도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지 내에 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체육관, 노인복지관, 철도 하부 터널 조성, (구)세무서 담장 허물기, 세무서 내 주차공간 확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관여된 주체**만 살펴봐도 총괄건축가의 조정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총괄건축가가 해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총괄건축가에 대한 자격요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총괄건축가 업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고 실무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없다. 행정 영역에서



삼각지 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출처: 영주시청

일해 본 경험이 없는 민간전문가가 공무원 조직 속에서 지역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지역의 공간환경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대로, 지역 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회대로 만날 때마다 그들의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체계가 좋은 건축을 위한 기획이나 공모 체계라기보다는 양적 공급과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환경에 대한 기존의 기획과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서로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도시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만 위촉한다고 좋은 도시·건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전문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민간전문가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 체계를 통해 모범 답안을 찾아볼 수 있다. 전제적인 체계를 갖춘 서울시는 우수한 공간환경이라는 성과물을 내고 있다. 그 성과물들이 바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총괄건축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시건축 관련 회의

나 계획 수립 시 총괄건축가의 참여나 자문을 필수 절차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건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총괄건축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총괄건축가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도시건축에 대한 비전과 기획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뿐만 아니라 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총괄건축가, 위원: 시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7명), 도시공간개선단(총괄건축가 아래 1단 6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공간환경 사업 총괄 및 부서 간 조정, 건축문화 기본 조성,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관련 정책 수립 조언,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검토,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

- * 1. 조제 보건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한국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2. 풍기읍사무소: 대한민국공공디자인 대상,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대상
- 3. 영주 실내수영장·복성전용 훈련장: 김수근 프리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 4.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 5. 노인종합복지관: 김수근 프리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6. 참사랑 주민지원센터 및 요선재: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한민국 공공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중앙부처(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공공기관(교육청, 세무서, 철도청), 시청(도시디자인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 주택지적과, 교통행정과, 경제활성화팀, 인재양성과, 투자유치팀 등), 민간단체(주민, NGO, 마을만들기팀), 용역팀(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조정, 가로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침)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1. 「건축사업」에 따른 건축사
-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018년 말 기준 248명(45세 이하 신진 148명, 중진 93명, MP 7명)

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사업진행 절차 단계별로 보면 사업계획 수립-사업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예산편성-사업 시행방침 수립 단계에 자문을 하며 설계용역 발주방침을 받을 때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가 관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다음은 지역건축위원회* 설립이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건축가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건축기본계획이나 행정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총괄건축가가 지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총괄·공공건축가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단은 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건축가 선발·운영, 발주제도 운영, 공간환경 사업 기획, 총괄건축가 지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경제학자 케인스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점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와 같은 도시건축 프로세스로는 도시건축의 품격을 높일 수 없다. 건축 기획과 생산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도시건축의 품격이 높아지고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총괄건축가, 공무원, 지역건축사회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총괄건축가, 공무원, 지역 건축가의 화학적 융합의 모범사례로 제주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영주시는 그동안 설명회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어 익숙하지만, 제주도는 생소할 것이다. 제주도 총괄건축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원이 더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역 사람과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총괄건축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제주도 총괄건축가는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참여시켰다. 지역 건축가들이 마련한 성과물은 제주 원풍경, 시별 브랜드 가치 향상, 공간복지 실현, 건축·도시공간의 비전 등으로 구성된 ‘2030 제주 건축·도시 공간 플랜’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랜은 도지사에게 보고되었으며, 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와 협업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지역과 마찰음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였다. 도시건축의 품격과 경쟁력은 총괄건축가 혼자 빨리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과정에 모두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간전문가 제도도 함께 할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참고문헌

-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7), 좋은 건축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축정책.
-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9),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 3 서울특별시, (2014),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마련.

‘동네행복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방안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

추진 배경

2018년 3월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도서관이나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림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형 등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특히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된 사업방식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공급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이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주택과 골목길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지역은 집수리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붕, 문·창호, 담장의 수리나 외벽 페인팅 등을 통해 경관과 에너지 효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집주인에게 가구당 주거급여 최대한도(2020년 1,241만원) 내에서 금전이 아닌 현물이 지원된다(집주인이 총비용의 10%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317곳) 가운데 약 170곳이 이러한 내용의 집수리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네 단위 집수리는 주거취약지수가 높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규모 건축업체나 설비업체, 집수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의 소규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어 적극 지원되고 있다.

다만 집수리 대상 주택들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거나 집수리 대상 주택들과 골목길 정비사업 등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수리 대상 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각각의 주택에 대한 집수리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집수리의 세부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집행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집수리’라는 사업명칭이 개별 주택 단위 사업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동네’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동네행복사업(동행사업)’으로 시범사업 명칭을 정하였다.

동행사업의 개념은 ‘주택 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 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동행사업은 이미 형성돼 있는 골목길이나 중심가로를 정비함과 동시에 길 양편에 위치한 주택들을 함께 수리하여 골목길·가로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동행사업의 주요 특징

국토교통부는 동행사업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에 총 17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주거환경의

개선 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모두 6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춘 후 원하는 시범사업 유형을 채택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①주택 전수조사 및 수요 파악 ②주택점검과 진단 ③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④공사 ⑤유지·관리 등 집수리 전(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산될 예정인 동행사업에는 기존 집수리 사업과는 차별화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행사업은 주택 단위가 아닌 골목·마을 단위로 집수리가 이뤄진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침에서는 집수리 사업에 대해 가구당 최대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폭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의 노후도와 소유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상 주택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 방식은 공정성이 담보되기는 하나 대상주택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안에 점 단위로

*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향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흩어져 있어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과 연계가 쉽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은 빈집 정원화, 가로등과 CCTV 설치, 보도블록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주민의 호응도와 체감도가 높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연계하면 더 많은 주민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 시행 시 담장을 허물거나 일부 뒤로 물려 설치하면서 정원화와 같은 골목길 환경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동행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골목길 정비사업 등과 집수리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게는 하나의 골목길과 관련된 주택 일체를 정비하고, 나아가 마을의 집수리 대상 전체를 일괄 정비하게 되면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도시재생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골목·마을 단위 집수리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나 건축협정·경관협정 등과 같은 제도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골목·마을 단위 집수리를 위하여 서로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행사업은 다섯 가지 대표 유형을 제시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동행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아래 5가지 유형 중 한두 유형을 선택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행사업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와 주민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그 의도이다.

우선 ①경관관리 연계형은 집단적 건축협정이나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유형을 선택할 경우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지붕경관 개선, 담장 정비, 골목길 노면 개선, 소규모 휴게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경관 관리의 지속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인접 필지 간 맞벽, 대지 내 공지규정 등을 완화 적용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②에너지관리 연계형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이 주민협약에 의해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미니 태양광 설치, 마을 단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지원될 수 있는 유형이다. 또 ③공공기여형은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담장을 철거한 후 마당을 전일 또는 시간제로 개방하거나 2층 이상의 주택에서 1층을 동네 주민에게 마을카페와 같은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낮은 담장을 설치하거나 화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골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

④거점시설 연계형은 골목길 내측에 위치한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골목길 정비와 인접 주택의 집수리를 시행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공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집수리 모델하우스로 제공하고, 인근 주택들의 집수리 기간에 이를 순환형 주택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사회공헌활동 연계형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집수리사업 등과 연계하는 유

형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개별 지자체의 동행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지역활동단체·주민공동체 등이 집수리 사업에 노동지분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동행사업을 통해 집수리 초기부터 수리 완료 이후까지 전 과정이 관리된다. 동행사업의 강력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나 에너지 관련 자격 소지자 등 최소 2인 이상으로 집수리 점검단이 구성되고, 이러한 집수리 점검단이 대상 주택의 상태 점검 및 에너지 진단을 시행한 후 집수리 점검카드를 작성한다. 이후 집수리 공동체 회의를 통해 사업모형을 결정하고, 집주인에 대한 집수리 상담과 공동체 회의 등을 거쳐 집수리와 골목길 공사 등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공사 실시설계가 발주되고 주민협정 등이 완료된 이후에는 집수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차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다. 공사입찰 후 공사가 준공되면 2차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집수리 점검단이 사후점검을 완료한 후 골목길 관리 협정까지 체결하고 나면 주민이 참여하는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집수리 전담기관인 터새로이지원센터*에서 집수리 이력관리카드를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수리 사업 과정에서는 집주인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침상 어떠한 사항이 지원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집수리 공사가 완료된 이후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대부분 집주인과 집수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행사업을 통해서만 집수리 점검단과 전담기관이 사업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한다. 동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노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택 하나하나에 대한 집수리 필요 정보를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등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사전적으로 집수리 교육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노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함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집수리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집수리 수요를 책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인·장애인 등 일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집주인·세입자의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집수리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행사업 과정에서는 집수리 점검단이 찾아가는 개별상담 등을 통해 집주인·세입자의 의견을 세세히 듣고 기록하면서, 집수리가 필요함에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 소외계층이 도시재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동행사업은 개별 주택 단위로 시행되던 집수리 사업의 개념을 동네·마을 단위로 확장한다는 데 가장 큰

* 지역의 건축사·시공업자 등이 지역청년·주민을 고용하여 노후건축물을 새로이 개선(리모델링)토록 '전문교육,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 관리, 집수리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원하는 기구(중앙지원센터는 지침 마련 및 전문교육 시행 등을, 지역지원센터는 지역사업자 관리와 집수리 사후 모니터링 및 집수리 이력관리 등을 하도록 업무분담)

의의가 있다. 또한 경관관리, 에너지 절감, 공공기여, 거점시설 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유형별 방향성을 초기에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절차적으로도 집수리 단위 사업 준공과 함께 관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와 골목길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에도 해당 동네·마을에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성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한다. 소외계층과 ‘동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 되면 개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가로 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 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내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행사업의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내년부터는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하여 집수리와 골목길정비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계획·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 집수리 활용 저층 주거지 재생 시범사업 워크숍 발표자료.
- 2 국토교통부. (2019).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터새로이사업 추진방안 연구.
- 3 서울특별시. (2018).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 계획.
- 4 이영아, 서종규. (2016). 도시재생과 가난한 사람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 5 진영효. (2016). 이거하면 우리 동네가 좋겠니?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 6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도심 속 공원이자 랜드마크, 싱가포르 주얼창이공항 인공정원 조성

육승철

옥스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싱가포르는 면적 692.7km²로 서울보다 약간 크고 인구가 500만 명인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초대 수상인 리콴유(Lee Kuan Yew)의 도시 녹화 정책으로 시작한 ‘시티인더가든(City in the Garden)’으로 푸른 도시공간을 가꿔 가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1인당 도시림 면적은 66m²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1인당 도시림 면적이 9m²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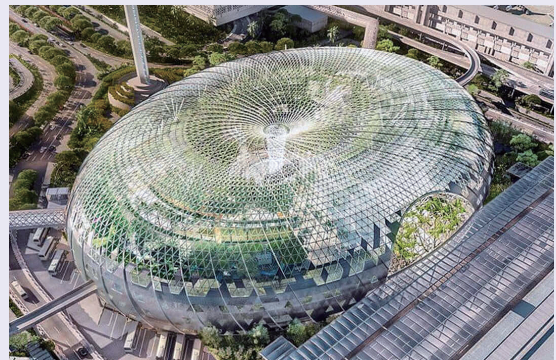
특히 싱가포르는 2019년 공항에 거대한 실내 인공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쉼터이자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얼창이공항 인공정원

싱가포르 정부는 대표적 녹화사업의 슬로건인 시티인더가든 정책에 따라 2019년 4월 새로 지어지는 복합문화시설이자 환승허브인 주얼창이공항(Jewel Changyi Airport)에 13만 4,000m²의 인공정원과 폭포를 설치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해당 건물 안에는 쇼핑몰과 레스토랑, 호텔 등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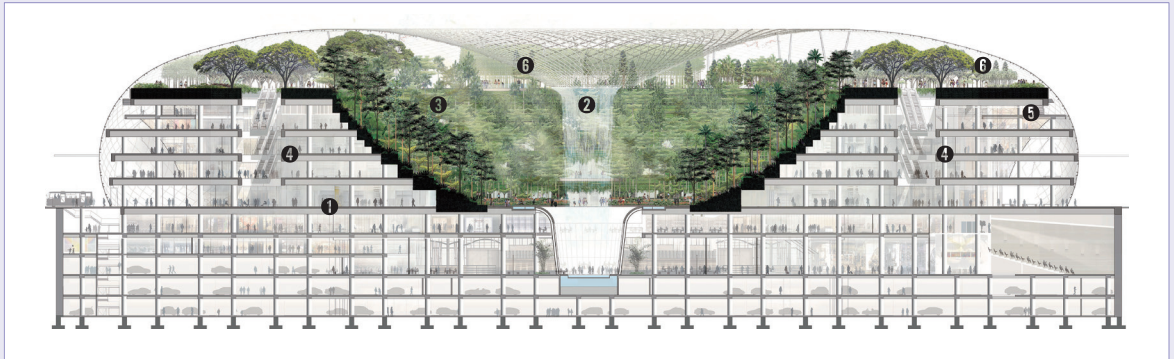
이는 세계 최초로 공항에 정원(Garde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례이며, 싱가포르의 시티인더가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다.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를 설계한 이스라엘계 미국 건축가 모세 사프디(Safdie Architects)와 911 추모관(911 Memorial)을 설계한 미국 조경가 피터 워커(PWP)



주얼창이공항

출처: www.pazzion.com



주얼창이공항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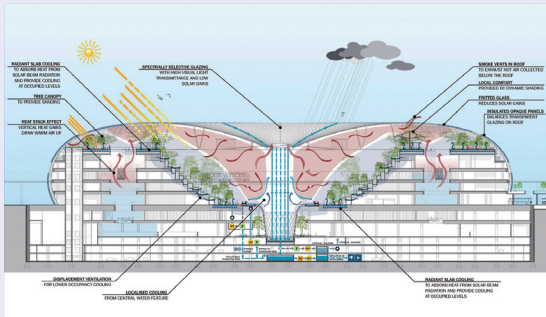
① 공항시설동 ② 레인 보어텍스(인공폭포) ③ 포레스트 밸리(인공숲) ④ 쇼핑·식당가 ⑤ 시설동 ⑥ 캐노피 공원

출처: <https://www.world-architects.com/en/architecture-news/headlines/falling-for-the-jewel#image-2>

©에네켄



주얼창이공항의 인공정원과 폭포



공기 순환도

출처: <https://www.safdiearchitects.com/posts/working-with-nature-and-resources>

Landscape Architecture) 등이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하였다.

주얼창이공항은 인간과 환경의 진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새롭게 시도한 에코 퓨처리즘(Eco-Futurism)을 적용한 구조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폭우 등의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빗물 재활용, 친환경 환기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싱가포르의 그린마크 플래티넘(GreenMark Platinum Statues)을 획득하였다.

주얼창이공항은 원환제 형태의 구조로서 유리나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9,0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특수 고성능 건축용 유리패널 외관은 내부에 자연광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내온도 증가를 최소화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열대 기후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빛반사를 줄여 항공 교통 관제사와 조종사의 주의를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유리 패널 사이에는 16mm 에어 갭이 있어 주변 터미널의 항공기 소음을 차단한다.

레인 보어텍스

주얼창이공항 인공정원 안에는 세계 최고 높이(40m)의 실내 인공폭포 레인 보어텍스(Rian Vortex)가 있다.

©유무중



주얼창이공항과 방문객들

볼록한 도넛 모양의 건축 형태와 지붕 중앙의 오목한 형태의 구멍을 활용하여 1분에 최대 38톤의 우수를 모으고 재사용하며, 공항 내의 실내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떨어진 물은 지하 물탱크에 수집되며 펌프와 여과 시스템, 지붕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다시 지붕으로 순환된다.

또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며 쾌적한 실내 공기흐름을 조성하는 변위 환기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실내는 항상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간에는 이러한 폭포를 활용한 레이저쇼 등이 펼쳐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레이저쇼는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분수를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웹 디자인(WET Design) 작품이다.

포레스트 밸리

중앙의 레인 보어텍스를 둘러싸고 인공숲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포레스트 밸리(Forest Valley)'는 지상 5층의 다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스식 정원이다. 관광객들은 이 정원을 따라 걸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포레스트 밸리는 싱가포르의 자연 요소를 적극적으로 공간에 도입하는 바이오필릭(biophilic) 디자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호주, 태국 등에서 가져온 2,500그루의 교목과 10만 그루의 관목 등이 자라고 있다. 식물의 수입이 인공정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미적 기준과 함께 인공정원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적응력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선택된 식종은 가지치기를 한 후 컨테이너로 옮겨 야외 종묘장에서 기르면서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에 적응시켰다. 식종을 조달하는 데 약 9개월, 인공정원으로 옮기기 전 식종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데 2년이 걸렸다.

이곳에는 다양한 테마 정원이 있다. 특히 5층에 있는 캐노피 공원(Canopy Park)에는 미로정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설치미술 공간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정원들이 있어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시민의 쉼터로

싱가포르는 이러한 공항 건설을 통해 도시 인프라인 공항과 싱가포르의 자연 생태계를 결합해 공공건축과 이용자의 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해에만 약 5,000만 명의 방문객이 이용하였는데, 이 중 60%는 싱가포르 시민들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1 <https://www.pazzion.com/edit/lifestyle/jewel-changi-airport-your-new-lifestyle-destination>
- 2 <https://www.world-architects.com/en/architecture-news/headlines/falling-for-the-jewel#image-2>
- 3 tias.com/jewel-changi-airport-completed/59298/
- 4 <https://www.designandarchitecture.com/article/the-architecture-and-design-of-jewel-changi-airport.html>

플로리다, 해수면 영향 평가 연구를 의무화한 건설 공공자금 조달법 마련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207607/public-projects-in-florida-to-require-sea-level-rise-impact-studies>

<https://www.constructiondive.com/news/florida-to-require-sea-level-studies-for-coastal-public-construction-projec/581552/>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0/178/BillText/er/PDF>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0/178/Analyses/2020s00178.ap.PDF>

플로리다는 지난 7월 1일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연안건축구역 내 건설사업에 대해 '해수면 영향 평가(Sea Level Impact Projection: SLIP)' 연구를 의무화하는 건설 공공자금 조달법을 마련하였다.

약 2,173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함께 낮은 고도를 가진 플로리다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1880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0~22cm 상승하였으며,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분석결과에서 2100년 해수면 상승 높이를 예상하였을 때 플로리다 남동부 지역의 상승 높이는 78.94~205.74cm(최저~최고)로,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높이 42.67~83.82cm(최저~최고)보다 높게 나타난다. 플로리다주 인구의 76%가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면이 30.48cm만 상승해도 6만 5,000가구 12만 2,000명의 안전과 3,000억 달러(약 349조 500억 원)의 재산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플로리다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해안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체계적이고 학제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접근 방식을 활용해 구조물의 예상 수명 또는 50년 중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해안 홍수와 폭풍 피해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중 연간 평균 홍수피해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며, 구조물에 미치는 피해뿐 아니라 구조물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비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년 동안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SLIP 연구에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조물 건설을 중단하거나 구조물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



플로리다 해안가
출처: shutterstock

AIA, 공동주택에서 코로나19 위험 줄이기 위한 전략 발표

<https://www.aia.org/press-releases/6318849-aia-releases-strategies-for-reducing-risk-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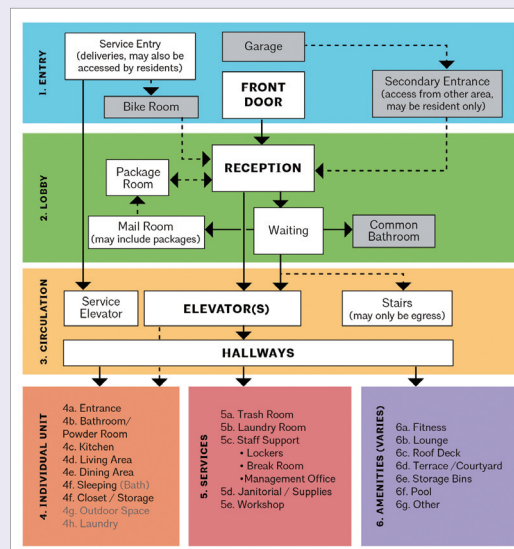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가 공동주택에서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담은 보고서 <Strategies for Safer Multifamily Housing>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공간을 ▲입구 ▲로비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이동공간 ▲개별 주거공간 ▲공동세탁실, 직원사무실 등 서비스공간 ▲라운지, 테라스 등 편의시설까지 여섯 개로 구분하고, 공간별 위험 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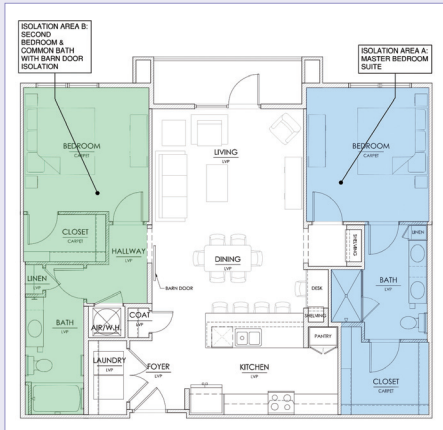
노출 지속시간과 근접성이 핵심

보고서는 입구, 로비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은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사용 빈도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은 공간으로 보았다. 반면 편의시설은 식사나 모임이 이루어지고 다른 거주자들이나 방문객과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트니스 룸처럼 활동성이 높은 공간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해 특히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공간이라고 보았다. 또 유지·보수가 되지 않거나 설치가 불량한 난방·환기·냉방시스템, 출입문 손잡이, 계단과 경사로 난간, 공동 우편함, 라운지 가구, 공동세탁실 기계 등의 접촉면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주택 공간 구분
출처: Askew, C. et al.
(2020). Strategies for Safer
Multifamily Housing. AIA. 3.



별도의 욕실과 침실이 있어 격리와 분리에 용이한 스위트(suite) 스타일의 주거공간 구조

출처: Askew, C. et al. (2020). Strategies for Safer Multifamily Housing. AIA. 8.

입구, 로비, 이동공간에 대한 전략

우선 ▲입구는 스와이프 또는 터치프리(touch free)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곳에 비접촉 체온 감지를 위한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으며, ▲로비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른 경로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로비를 닫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좌석이나 커피머신, 잡지 등 접촉이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출입증 발급 등의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터치 스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필히 소독하며,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로비와 이동공간을 둘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을 제한하고, 음성 또는 휴대전화로 층수 입력이 가능해 접촉을 줄이는 방안 등도 제안하였으며, ▲로비 공간의 우편물실은 전염병 확산 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공간으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 입주민 간 접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용 서비스공간에 대한 전략

공동세탁실, 분리수거 공간, 자전거 보관실 등은 터치프리 방식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하고, 자주 만지는 공용물품은 세척이 잘 되는 재료로 된 것을 쓰도록 권장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기반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

개별 주거공간에 대한 전략

바이러스의 건물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인 소포나 신발·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자주 소독하고, 입주민들이 외출 전후 정기적으로 손을 씻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실내와 욕실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부엌과 화장실의 싱크대와 배관을 자주 청소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설계 시 외부 일광과 유사한 파장과 밝기의 전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입주민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식사·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중장기적 전략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재택근무와 재택교육에 용이한 설계 ▲공간을 필요에 따라 확장·밀폐·변형할 수 있는 다기능화 ▲더욱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 설치 ▲소포와 신발 등을 소독·보관할 수 있는 머드룸(mudroom) 개념의 중간 공간 또는 장치 확충 ▲발코니와 파티오(Patio) 크기 확장 ▲비상시에 대비한 전기·와이파이 시스템 개선과 식품·보호장비의 대규모 저장장치 확충 등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NACTO-GDCI, 어린이를 위한 거리 디자인 원칙 제안

<https://www.archdaily.com/945350/10-actions-to-improve-streets-for-children>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publication/designing-streets-for-kids/>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2020/08/06/press-release-dsfk/>

미국 전국도시교통담당관협회(NACTO)의 프로그램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에서 지난 8월 6일 글로벌 거리 디자인 가이드(GSDG)의 부록인 '어린이를 위한 거리 디자인(Designing Streets for Kids)'을 선보였다. 이는 보행자이면서도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자로서의 어린이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췄으며, 어린이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95cm 높이에서 생각해 보기: 거리 사용자로서의 어린이와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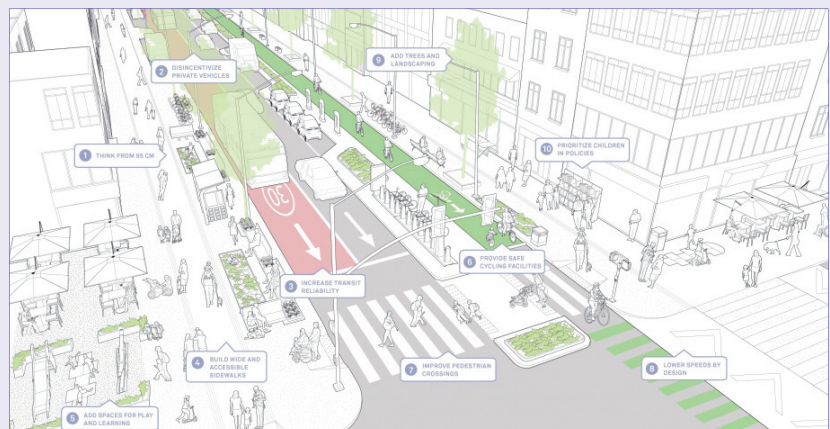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거리를 설계하는 것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를 돌보는 노인인 임산부 등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어른을 포함해야 한다.

적절한 속도를 위한 설계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의 주변 시야를 좁히고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시속 30km 이하의 속도제한 정책과 함께 차선폭을 3m 이하로 줄이고, 교차로 설계를 단순화하는 등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도로 설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친화적 정류장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접근이 쉬우면서도 기다리는 동안 예술과 놀이, 게임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끄는 요소를 담아 정류장을 설계해야 한다.



©NACTO-GDCI

어린이 친화적 거리설계를 위한 10가지 원칙

출처: NACTO-GDCI 홈페이지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2020/08/06/press-release-dsfk/> (검색일 : 2020. 9. 9.)

© 광주시민신문



건축회사 MVRDV와 광주 서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설계한
광주비엔날레의 자동차 통행금지 거리

© City of Tirana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는 시속 20km로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자전거 통행량이 늘어났다.

접근이 편리한 넓은 보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는 접근성은 물론 여러 사람과 무리 지어 걸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환한 조명, 적절한 산책 공간, 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 지역은 최소 1.8~2.4m의 폭을, 보행량이 많은 도심 또는 스쿨존 등은 2.4~4.5m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시속 30km 이상 도로에서는 완전히 보호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과는 분리된다. 하루 평균 1,000~2,000대 수준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통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제안할 수 있다.

횡단보도 개선

횡단보도는 가능한 한 짧고,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고려해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교통섬이나 넓은 연석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나무와 풍경 더하기

녹지공간은 대기오염물질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열섬효과를 줄여준다. 또 다양한 나무들은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의 두뇌발달과 인지 능력,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본,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6_hh_000184.html

https://www.kenken.go.jp/mansion_s/offer2.html

일본 국토교통성과 건축연구소(BRI)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와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マンションストック長寿命化等モデル事業)’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일본의 맨션은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중고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을 일컫는다.

BRI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맨션 재고는 655만 호로, 일본 국민의 10% 이상이 맨션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준공한 지 40년 이상 된 맨션이 81만 호이며 10년 후에는 198만 호, 20년 후에는 367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 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은 맨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공모는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 조사·검토 등을 돕는 ‘계획 지원형’과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 재건축 공사 실행 단계를 지원하는 ‘공사 지원형’이 그것이다. 지원 대상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의 맨션으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省令)의 내용연수에 2분의 1을 경과한 것 등이다. 계획 지원형은 1건당 500만 엔, 공사 지원형은 조사설계계획 비용과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방안에 대한 비용 등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1 회 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으며, 8월 초 총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BRI는 해당 사업의 목적이 ‘전국 맨션의 재생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에 있는 만큼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이며 범용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제1회 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2020). 「マンションストック長寿命化等モデル事業」の採択プロジェクトを決定しました. 8월 5일 보도자료.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노력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0. 7. 15.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8. 7.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②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출처: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7월 15일 보도자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분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망 구축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6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거나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심사회를 지향점에 둔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구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를 진행하며, 미세먼지 차단숲·생태복원 사업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통해 녹색 생태계 회복에 앞장선다.

이 외에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1,229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위한 민간전문가 그룹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총 17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리하게 된다.

이에 에너지 성능 개선(30% 이상)과 미세먼지 저감(75% 이상) 등 그린리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공공기관 공모를 진행하여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모두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국토교통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 8. 3.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한다. 이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2010년 수립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지난 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면,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공모전은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터인 건축에 대한 짧은 에세이나 포스터·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idea.aurum.re.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제출 형식에 상관없이 총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의 경우 공모전 참여 외에도 건축정책 댓글토론이나 해외정책 소개 등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시상 규모

구분	건수	포상	포상 종류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2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20. 7. 16.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자연경관·공공디자인 등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도시재생), 2개 경관행정 부문 등 모두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매년 주최하는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경관·디자인 조성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공모 결과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123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토경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지하·공원 등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접수된 작품은 7개 학회와 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먼저 대통령상에 선정된 ‘천사대교’는 1004개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 도서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FCM 주두부에 케이블 정착 방식을 도입한 세계 최장(주경간 길이: 510m) 고저주탑 사장교로서, 주변 섬의 형성과 어우러져 서해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경관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무총리상에 선정된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반지하 임대주택 6곳을 청년 건축가 주도로 청년코워킹공간, 공유주방, 실내가드닝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작 '천사대교(압해~암태) 제1공구 건설공사
출처: 국토교통부. (2020).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신안군
'천사대교' 대통령상 수상, 7월 16일 보도자료.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

구분	부문	작품명
대통령상	사회기반시설	천사대교(압해~암태) 제1공구 건설공사(주디엠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특별 부문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서울주택도시공사)
	자연경관	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한국토지주택공사)
	가로와 광장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대구 남구)
	주거·상업·업무단지	세종4-1 생활권 캐슬엔파밀리에 디아트(신동아건설(주))
	공공·문화건축물	남사도서관(주중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화 디오피)
장관상 (9)	공공디자인	밀양시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경남 밀양)
	사회기반시설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코오롱글로벌(주), (주)삼보기술단)
	특별 부문 (도시재생을 위한 유희공간 활용)	신촌, 파랑고래 건립 및 운영(서울 서대문구)
	경관행정 협업	시민참여형 경관자원조사를 활용한 경관행정효율화(충남 당진)
	경관행정 사업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반집을 마을수익시설로(경기 양주)

국토교통부, 입체적 경관관리 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20. 8. 17.

최근 인천·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디지털 트윈기술*을 적용한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등 가상현실을 통한 국토 경관관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후원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관관리 기술의 활용과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3차원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경관심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쉽게 경관에 대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용 기술(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일까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3차원 모델링 위 신규 제작 또는 기개발 및 활용 중인 심의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결과물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현장 시현 및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술은 오픈 플랫폼이나 정부 공간정보 플랫폼의 사용환경에 구현하여 공공·민간 등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경관심의 시 선정된 기술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기술 확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2020. 8. 19.(수) ~ 2020. 10. 2.(금)

공모기간
2020. 8. 19.(수) ~ 2020. 10. 2.(금) 총 45일간

참가자격
기업, 대학, 학회, 일반 개인 등 모든 누구나

공모대상
경관심의를 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3차원 모델링 등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관심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결과물

심사기준
기술의 유용성 및 실용성, 경관심의의 편의성, 자료의 정확성, 제작성 및 활용성, 창의성, 기술개발의 진척률 등 총 6가지 항목

최종심사결과
총 5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작을 발표한다.

구분	상위 1등	상위 2등	상위 3등	최우수작
연구비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장학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장학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공모신청 및 문의처
신청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2-12-12345678) 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2-12-12345678)

문의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2-12-12345678) 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2-12-12345678)

* 현실 속 사물의 가상모델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기술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0. 6. 3.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2020. 8. 9.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2020. 8. 18.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2020. 8. 12.

전국에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공공미술 사업인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스토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사업 장소와 프로젝트 유형을 결정하고 작가팀을 공모·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충청북도도 11개 시·군에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1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며 ▲벽화·조각·회화·미디어아트 등 작품 설치형 ▲문화적 공간 조성 및 전시형 ▲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다수 유형 복합추진형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총 75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시·군당 약 37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설치장소와 사업유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 작가들의 제안을 받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건축자산 발굴, 활용 노력

인천시 재생콘텐츠과
2020. 7. 20.

세종시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2020. 8. 2.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2020. 8. 6.

인천시, 옛 세관창고와 부지 활용 방안 모색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인천 내항 1부두 옛 세관창고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세관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인선 신포역 부근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는 1911년 건립되어 2013년 국가등록 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되었으며, 인천항 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향만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옛 세관창고를 세관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주변 약 3,000m²를 도심 속 힐링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시민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기존 인천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코스, 인천 근대건축물탐방코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종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세종시가 '청자장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제안서 평가를 추진한다. 청자장은 1985년 조치원 상리에 지어진 여관 겸 목욕탕 건물로, 사업을 통해 주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7월 공간 전문운영자 선정을 마친 데 이어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건축사가 선정되면 전문운영자·주민협의체와 함께 보완을 거쳐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내항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 전경

출처: 인천시. (2020). 옛
세관창고 시민개방, 사-인천세관
손잡다! 7월 20일 보도자료.



시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될 청자장

출처: 세종시. (2020).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준비
'착착'. 8월 2일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구 서울역사 폐쇄램프*를 시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폐쇄램프는 진출입로가 이중 나선형으로 분리돼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도심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의 특색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담아 서울역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생할 계획이다. 시는 폐쇄램프의 이중 나선형 구조를 이용해 서울로7017 그리고 10월 개통되는 공중보행교와 연결하여 새로운 재생길을 조성한다. 폐쇄램프 재생공간은 현재 구 서울역사 옥상에 조성 중인 녹지·휴게 공간과도 연결된다.



구 서울역사 폐쇄램프

출처: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홈페이지. <http://seoullo-idea.kr/>

* 높이 약20m, 연면적 1,159m² 규모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주택 및 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

임보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 간 격차, 주택 부족,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 홈리스(homeless), 도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온 호주 국책 연구기관인 호주주택·도시연구소(The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를 소개하고자 한다. AHURI의 연구 협업 방식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은 도시계획 및 지역재생 정책을 수립할 때 주택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소개

기관의 비전과 목표

1999년 설립된 AHURI는 지난 20년간 호주의 주거, 홈리스, 도시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주거·홈리스·도시이슈 등과 관련된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진일보된 지식을 축적해 오고 있다. AHURI는 영연방(Commonwealth), 주 및 지역 정부, 호주 전역의 대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HURI는 ‘주택과 도시 문제에 대한 호주의 정책과 의사결정은 신뢰성 있고 독립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세부 사항을 달성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AHURI는
지난 20년간 호주의
주거, 홈리스,
도시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이다.”

-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의 투자 조율을 통한 결과와 가치의 최적화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계획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
- 건강하고 응집력 있으며 상호 연계된 커뮤니티
- 저렴한 주택과 안전한 주거

또한 2018~2022년 미래 전략 계획에서는 도시, 주택, 참여, 합의, 역량 그리고 가치 부문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 전략적 목표 하나: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도시 정책과 계획 그리고 실무를 알리고, 영향을 미침
- 전략적 목표 둘: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주택 정책과 계획 그리고 실무를 알리고, 영향을 미침
- 전략적 목표 셋: 모든 부문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참여 독려
- 전략적 목표 넷: 주택과 도시 문제에 대한 공공 및 전문적 이해를 쌓고, 논의를 알림
- 전략적 목표 다섯: 국가 정책과 연구 역량 강화
- 전략적 목표 여섯: 연구 결과물의 가치 최적화

AHURI는 이와 같은 부문별 전략을 통해 호주의 정부 정책이나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 및 운영

AHURI는 증거 기반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연구 조직으로 비영리 연구 관리 회사인 AHURI Limited를 기관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 AHURI Limited에서는 연구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기업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HURI Limited 의회를 통해 매년 내외부 감사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경영 시스템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AHURI의 연구는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의 협업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연구 각각은 전문가 패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AHURI의 통합 연구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 연구 협업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주택이나 홈리스 및 도시 연구 정책 커뮤니티와의 협력하에 증거 기반의 포럼과 콘퍼런스·워크숍 및 기타 활동이 추진되며, 학술 활동의 결과는 증거 기반 정책 개발을 위해 활용된다.

현재 AHURI는 ①호주 정부, 주(state) 그리고 지방 정부, ②AHURI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기부금, ③정당의 기부금과 같은 세 가지 출처를 통해 재원을 얻고 있다. 호주 정부나 협약 대학에서 받은 재정은 국가 주택 연구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의 온라인 출판에 투입되고 있다.

“호주 내 도시 지역의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증거 기반의
도시 정책은
국가적 어젠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AHURI는 도시
부문의 전략적 어젠다
개발을 가이드하기 위해
정책 및 근거 검토를
맡아 왔다.”

주요 역할 및 기능

주택 연구 수행 및 지원

AHURI는 주택 관련 분야에 있어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National Housing Research Program(NHRP)’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간 AHURI는 NHRP를 통해 5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00년도 이래로 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연구 보고서와 정책 개발 요약서 700여 권을 발간하였다. NHRP를 통한 연구 결과물은 주택·홀리스·도시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용적 응용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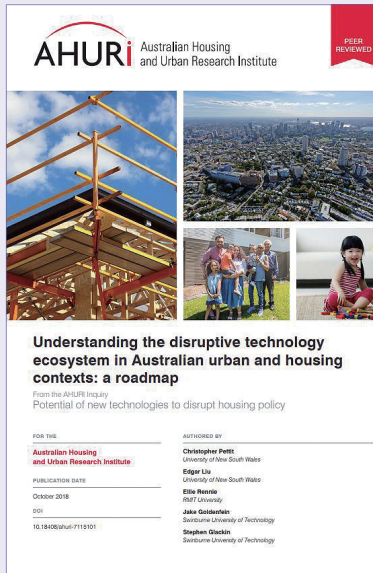
이와 같은 AHURI의 연구 성과는 AHURI와 호주 대학들과의 연계·협력에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AHURI는 주택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NHRP를 통해 대학 측에 장학금과 박사 후 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은 주택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택 연구 보고서 작성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AHURI 네트워크의 연구 파트너

출처: AHURI(2019a)

AHURI는 개원 이래로 공공 포럼, 행사 그리고 콘퍼런스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증거 기반의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이들이 주택·도시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적·공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도시 분야 발간물 예시

출처: AHURI 홈페이지. <https://www.ahuri.edu.au>



2019 National Housing Conference

출처: AHURI 홈페이지. <https://www.ahuri.edu.au>



도시 및 지역 정책 연구의 확대

호주 국민의 67%에 해당하는 1,700만 인구가 호주의 중심도시에, 300만 명의 인구가 인구 규모 10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18~ 2019) 호주의 중심도시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들*에서는 1.7~2.3%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호주 내 도시 지역의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증거 기반의 도시 정책은 국가적 어젠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AHURI는 도시 부문의 전략적 어젠다 개발을 가이드하기 위해 정책 및 근거 검토를 맡아 왔다. 구체적으로 호주 정부와 주 및 지역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대도시 계획 그리고 호주 인프라 기구의 간행물을 조사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호주 도시 정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주제(인구, 커뮤니티 및 장소, 경제, 도시 정책에서의 주거, 토지이용과 개발, 인프라, 교통, 환경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그리고 계획)를 도출하였다. 또한 저명한 국제 연구 저널과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연구 기관의 출간물에서 도시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원주민 관점, 건조 환경과 디자인, 정보의 디지털화)를 탐색하여 각 주제들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담긴 간행물인 'AHURI Briefs'를 발간하고 있다.

AHURI는 지난 20년간 NHRP를 통해 깊이 있는 주택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NHRP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국내외 주택 연구에서 인정을 받아왔다. AHURI는 향후 도시 및 지역 분야에서도 NHRP와 비슷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도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개발 연구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와 도시 관련 문제에 대해 호주 정부, 주 및 지역 정부 그리고 도시 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비영리 그리고 상업 부문 간의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다윈(Darwin)과 타운즈빌(Townsville)은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핵심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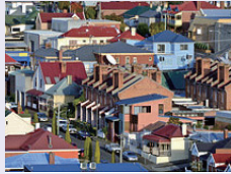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 연구 수행

주택과 관련된 AHURI의 연구 주제는 아래와 같이 총 열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주제들은 저소득 계층이나 호주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편 AHURI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임대 주택 제공 방식, 주택 보조금 지원 방안, 주택 세제 개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근에는 저렴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저렴임대주택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 도시 계획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또 지역 내 홈리스를 지원하고 홈리스의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이나 아동과 청소년 계층을 위한 노숙자 예방 및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호주 원주민들의 주거 질 악화와 노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 모델 및 주택 서비스 등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주택 관련 AHURI의 연구 주제



사회적, 저렴주택 금융



주택 소유



홈리스



주택 포부와 경력



주거지원 및 사회정책



주택 및 경력



원주민 주거



민간 임대 시장



사회적, 저렴주택에 대한 공급과 수요



세금 및 주택 정책



도시 계획 및 주택

출처: AHURI 홈페이지. <http://www.ahuri.edu.au>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연구 지원

2019년 AHURI는 도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3건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RMIT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대도시 및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주택·교통·지역사회 분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 결정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역시 RMIT 대학과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여행 패턴 변화와 대내외 여건변화(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의 도시 교통 프로그램 및 정책 탐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드니대학교와 협업한 세 번째 연구는 시드니와 브리즈번 그리고 퍼스 전역의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인구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시작으로 AHURI는 인구, 커뮤니티와 장소, 원주민 문화, 경제, 도시 정책에서의 주거, 건조 환경과 디자인, 토지이용과 개발, 인프라, 교통, 환경적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및 계획을 주제로 도시 연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증거 기반의 정책을 바탕으로 팽창하는 도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맺으며

AHURI는 주택 관련 주제에서부터 도시 관련 주제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AHURI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는 두 가지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와 ‘증거 기반’이다. 연구 방법론상의 엄밀함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AHURI의 증거 기반 연구들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날카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다.

게다가 AHURI와 대학교의 협업 체계 구축은 주택 및 도시 학술 분야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대학 기관과의 협업은 주택 및 도시 분야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양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역으로 대학 측은 주택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박사 후 과정 지원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AHURI가 보여준 ‘기관들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협력하는 자세’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노력 그리고 ‘이들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 제시’는 국내 연구기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AHURI. (2019a). 20 YEARS OF AHURI.
- 2 AHURI. (2019b). Strategic Plan 2018-2022.
- 3 AHURI 홈페이지. <http://www.ahuri.edu.au>

건축과 도시공간

—

Vol. 39

Autumn 2020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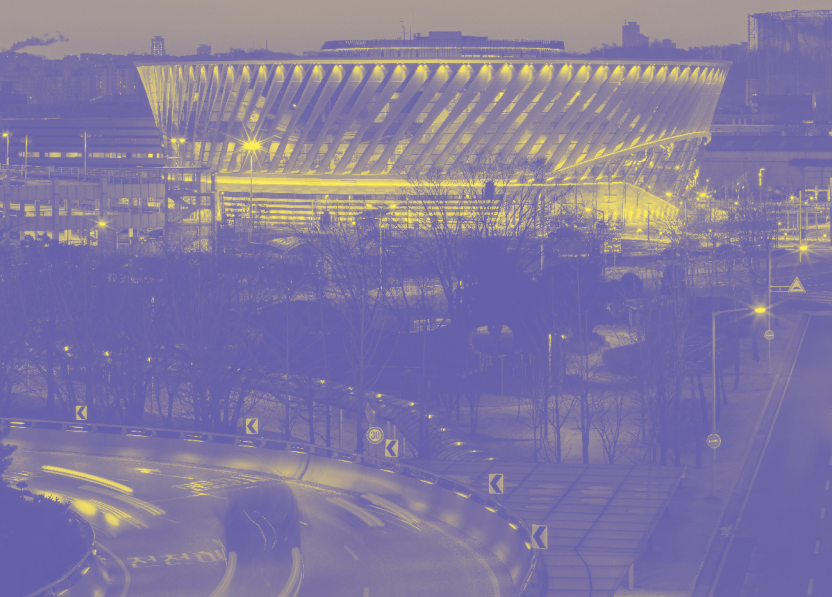
중림시장의 옆에서 변화하고 시끌벅적한 때부터 모두가 떠난
고요한 시간까지. 세월의 떼와 켜켜이 쌓인 이야기를 머금은 가
게들과 거리가 다시 생동한다. 새롭지만 중림동 언덕길에 자연
스레 녹아들도록 설계되어, 옛 기억과 새로운 추억이 만나 또 다
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되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항공이 역동적인 궤적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향해 간다. 에어터빈을 닮은, 비행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들겠다는 심플한 아이디어는 치열한
고민을 통해 우리 눈앞에 세밀하고 정교하게 실현된다.

서민이 살아가고 있는 정오철이파트와 켄필센터



정오철이파트와 켄필센터



재생, 오래된 동네가
잊혀진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 중립창고
106

항공 100년의
역동성을 담은 건축
- 국립항공박물관
122

재생, 오래된 동네가 잊혀진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 중립창고 | 잊혀
가던 동네의 오래된 창고 건물이 도심재생사업을 만나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되었다. 중립동 거리가 내부공간까지 확장된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새로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거리의 세월이 물씬 느껴진다. 새
롭지만 새롭지 않은 중립창고는 물리적 창고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추
억의 창고가 되어간다.

항공 100년의 역동성을 담은 건축 - 국립항공박물관 | 항공을 주제로
최초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은 과학과 자유, 아름다움, 모험정신을
담고 있다. 에어터빈을 닮은 건축, 비행기 사이를 통과하며 전시를 즐기
는 내부공간에서 대한민국 항공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앞으로 항공
의 대표 랜드마크로 미래를 밝히는 역동적인 장소, 세계로 도약하는 항
공문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

중 림 창 고

재생, 오래된 동네가 잊혀진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강정은
건축사사무소
에브리아키텍츠 대표

개요

위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6길 33
용도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대지면적	267.26m ²
건축면적	122.61m ²
연면적	267.26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폐율	48.33%
용적률	71.2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더원구조
설계	건축사사무소 에브리아키텍츠
설계담당	강정은, 이지수, 김형진
시공	주식회사 은하건설
기계·전기설계	대광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18. 2.~2018. 6.
시공기간	2018. 11.~2019. 8.
건축주	서울시



옛 동네 중립동과 중립참고



종립창고의 개방된 내외부



© H
2017

한때는 서울에서 번창한 수산시장이
자리하던 중림동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남은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
서울의 기능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중림시장은 쇠락해 갔고,
중림창고 역시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곳에 동네를 닮은, 새것이지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름도 원래 사용하던 것과 같은 ‘중림창고’ 건물이
들어섰다.



© H
2017



© H
2017

상 서로 이웃하고 있는 성요셉아파트와 중림창고
하 중림창고와 성요셉아파트가 있는 거리 풍경



© H
027



© H
027



© H
027

상 같은 듯 다른 외부길과 내부길
하·좌 깊이감 있는 내부공간
하·우 다양한 내외부공간



다양한 법칙으로 활용되는 1층 공간



01
F



02
F

상 거리와 이어지는 내부
하 2층 내외부공간

©USO



©노경



©노경



©노경



좌·상 2층 내부공간
 좌·하 지하공간
 우·상 2층 외부계단
 우·하 추억을 만드는 장소-2층 외부공간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새것이지만 오래된 듯한 골목길의 정겨움을 자아내고, 건물의 지리적 조건을 설계에 그대로 포함시켜 언덕길이 건물 내부공간까지 확장되도록 만들었다. 또 시각적으로 한 공간이지만, 개별 매스들로 영역을 다양하게 나누어 이용자에 의해 가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건을 보관하던 중립창고가 이제는 추억이 쌓이는 기억의 창고로 변모하고 있다.



© 건축사사무소 에프라이키텍츠

우연히 만나는 다른 각도의 외부공간

중림동,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오래된 동네의 남은 창고

서울역 뒤편, 서소문 밖 근처에 있던 남은 창고는 길 건너편에 있는 성요셉아파트(1971)와 청파로변에 위치한 중림시장의 시작과 세월을 같이했다. 성요셉아파트는 도시형아파트의 원형 중 하나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기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성요셉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야 중림동 언덕길이 정비되고, 길가의 자투리 공간도 생겨났다. 중림시장은 조선 시대에는 ‘칠패시장’으로, 근대에는 ‘경성수산시장’으로 불렸다. 한강에서 만초전을 따라 물산이 들어오던 곳으로, 1980년대까지 서울에서 번창한 수산시장이기도 하였다. 시장은 새벽에 열렸고, 점포가 없는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남은 물건을 인근 언덕배기 자투리땅에 얼기설기 건물을 지어 보관하던 것이 창고의 장소적 기원이다.

1980~1990년대 서울의 기능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가고 상인들이 노랑진이나 가락동으로 떠나면서 중림시장이 쇠락하고, 창고 또한 버려졌다. 건물은 10년 이상 동네의 구박덩어리 흉물로 전락하였다가 2016년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심재생사업의 대상지가 되면서 새로운 시절을 맞게 되었다. 서울도(道), 중림리(里) 성요셉아파트 주변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곳에 동네를 닮은, 새것이지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오래된 것 같은, 이름도 원래 사용하던 것과 같은 ‘중림창고’ 건물이 들어섰다.

동네 이해하기: 동네의 인상, 대지의 조건

중림창고를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거리의 풍경이었다. 경사가 급하지도 완만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언덕길의 한편에 50년 된 성요셉아파트가 자리하고, 그 아래 1층에는 10평 남짓한 면적을 가진 27개의 작은 가게들이 있었다. 이 가게들은 오랜 세월 여러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들쭉날쭉한 경계와 레벨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빠죽빠죽 튀어나오고 들어간 입면은 도심 한가운데 있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정겨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과 언덕길을 사이에 두고 있던 옛 창고건물은 이미 거리의 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언덕길의 배경처럼 기억되는 장소였다. 이런 조건에서 새로 만들어질 건물은 오래된 동네에 이질감 없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따라서 ‘기존 거리 풍경과의 어울림’, 이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 HJ
027



상 옛 동네 중림동과 중림창고
하 중림창고와 성요셉아파트가 있는 거리 풍경



옛 창고 모습



© 노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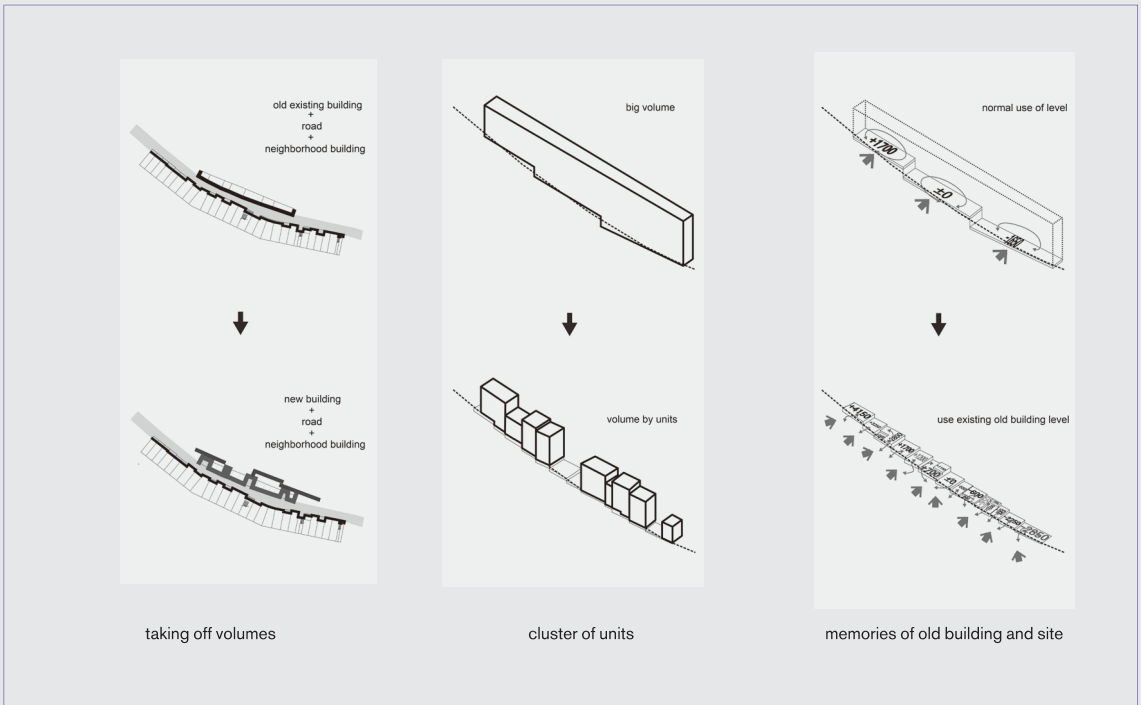
상 서로 이웃하고 있는 성요셉아파트와
중립창고
하 중립창고의 개방된 내외부

길이 55m, 좁은 폭은 1.5m에 넓은 폭은 6m, 대지고저차 8m의 언덕길 길가에 위치한, 길고 좁고 높은 대지는 4m의 길을 사이에 두고 성요셉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골목과는 이질적인 무표정한 입면을 가진, 한국경제신문사의 윤전동 건물(윤전기가 있는 건물)과 오래된 축대를 경계로 이웃하고 있었다.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서 것이 가능한 대지구나’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원래 땅의 물리적 컨디션만 보자면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길가 공원으로 활용되기에 적당한 규모였다. 길이면서 길이 아닌, 건물과 길의 그 중간쯤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건축가로서 풀어야 할 두 번째 숙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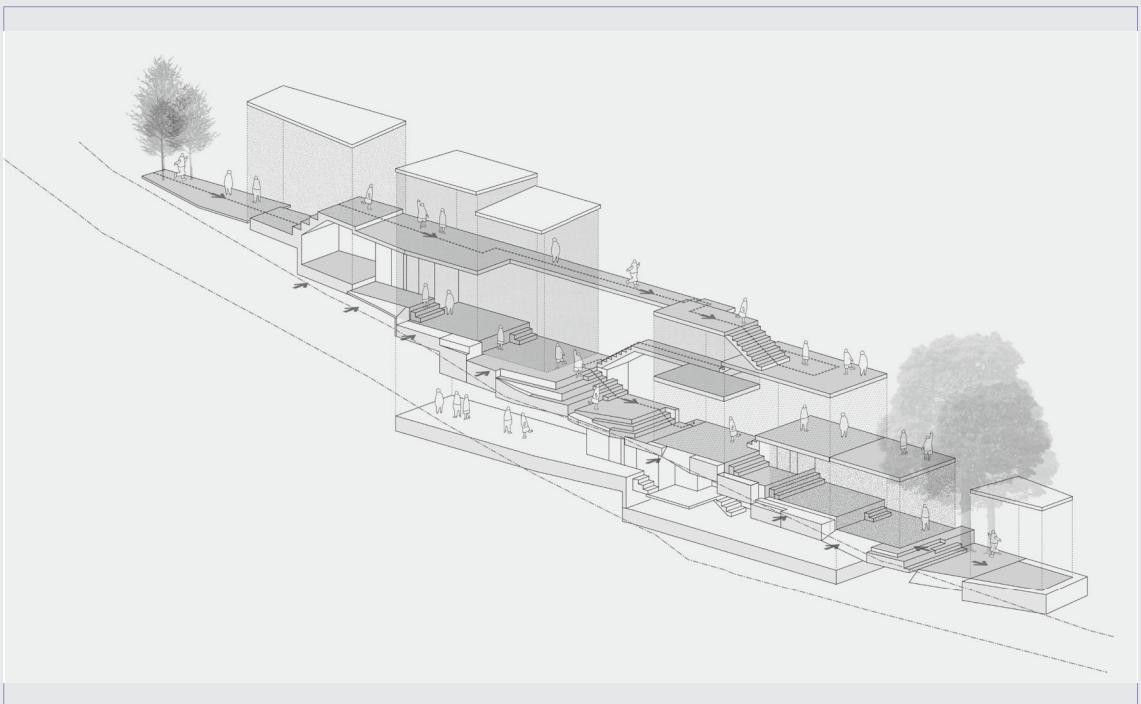
오래된 동네의 새롭지만 오래된 것 같은 건물

도심에 있되 세련되지 않은 동네와 어울리는 풍경으로서의 건축은 건너편 성요셉아파트와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아파트는 언덕길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지만, 거리의 시각적 인상을 만드는 아파트 1층의 가게들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모습이 제각각이다. 그 가게 하나하나의 단위는 폭 4m를 넘지 않고, 그런 가게들의 군집된 모습은 거리 풍경의 다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립창고 건물의 매스를 한 덩어리가 아닌 아파트상가와 같은 크기의 분절된 단위로 나누어 길 양편으로 작은 규모의 매스들이 요철의 형태로 서로 반응하는 듯한 배치가 되게 디자인하였다. 작은 단위 매스들의 들어가고 나온 형태는 건물이 되기도 하고, 들어간 부분이 아예 확장되어 외부공간이 되기도 한다.



콘셉트 다이어그램



동선 다이어그램



© H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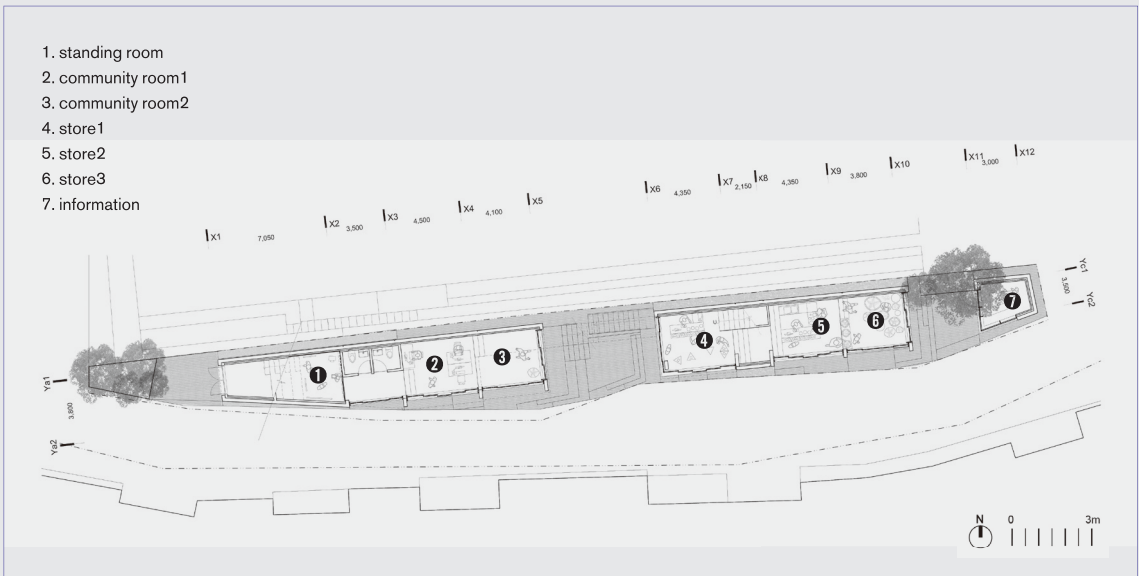
상 같은 듯 다른 외부길과 내부길
중 깊이감 있는 내부공간
하 1층 내부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중립동의 동네 분위기가 도심에 있되 세련되지 않은, 투박하고 정겨운 세월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와 어울리도록 어디서 본 듯하지만 새롭게 보이는 재료, 새것이지만 오래된 듯한 질감의 재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오래된 동네와 같이 나이들 재료로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마감기법을 조금은 달리하여 익숙하지만 흔해 보이지 않는 외부의 모습이 본래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듯한 풍경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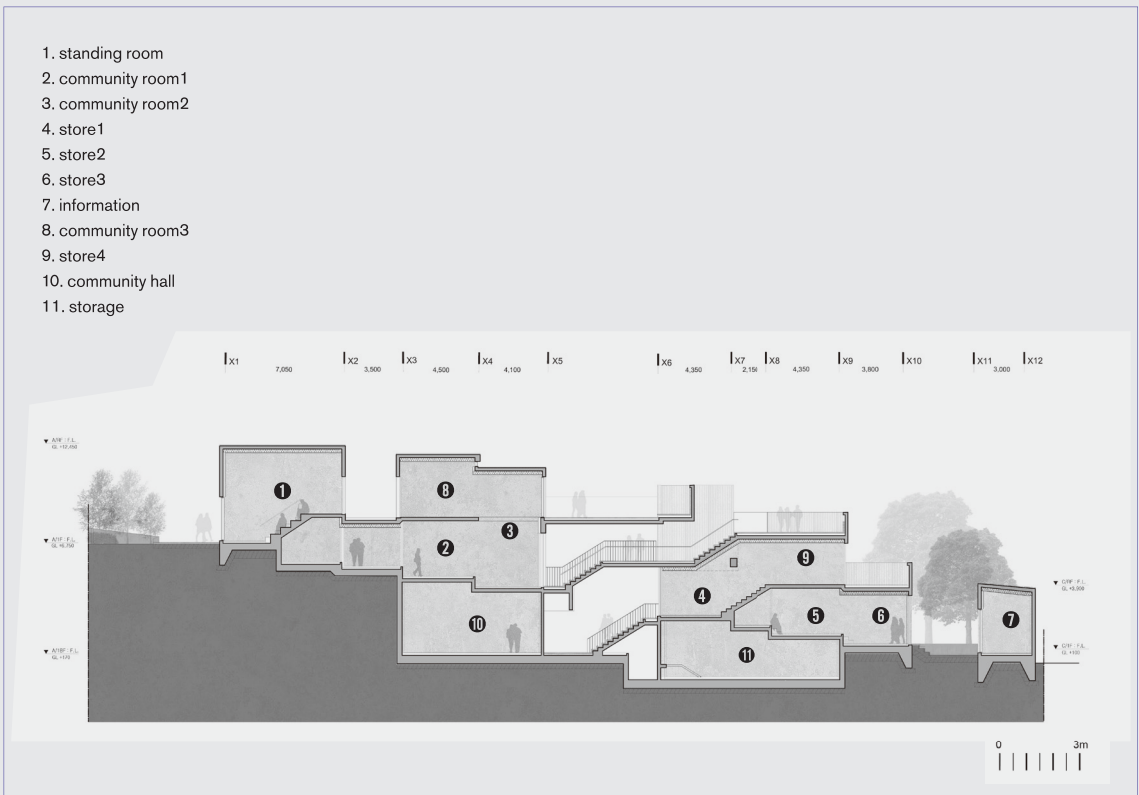
길과 건물의 경계, 그 어디쯤에 있는 건물

언덕길로 편입되어도 어색하지 않을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되 길이 아닌 건물이 될 숙명을 가진 대지의 조건이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었다. 중립창고는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볼 때 외부의 길이 내부공간까지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 즉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활동이 실내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언덕길을 따라 걷듯이 내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듯이 내외부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반대로 내부공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3m 내외의 좁은 물리적 공간을 가지지만, 거리 쪽으로의 시각적 확장을 통해 건물이 마냥 좁지만은 않게 느껴지고, 확장된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싶게 한다.

이렇듯 (시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내외부를 서로 자유롭게 흘러 다닐 수 있으려면 건물과 거리가 접한 부분이 한없이 투명하게 개방되어 어디서든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1층에서 거리 쪽으로 먼 부분은 전부 투명하게 하고, 오픈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내부에서의 시선은 언덕길 외부로 향하게 하여 거리와 끊임없이 교감하게 된다. 또한 외부에서는 투명함을 통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어느 레벨에 있는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건물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 건물과 거리가, 밖의 지나가던 사람과 안의 머무는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1층 평면도



단면도



© F27



© USO



© F27

상 거리와 이어지는 내부
중 2층 내부공간
하 2층 내외부공간

건물 전체 동선의 흐름을 만드는 데는 오래된 동네길의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건물 내부는 폭은 좁지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이 건너다보일 만큼 깊은 깊이감을 가지면서 내부의 연속된 공간감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깊이 있는 공간은 외부공간과 수직동선으로 연결되고, 끊어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공간적·시각적 다양함을 보여준다.

또한 시각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이지만, 개별 매스들로 이뤄진 건물의 형태는 레벨 차를 통해 활용 면에서 다양하게 나뉜 영역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픈된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높은 공간, 낮은 공간, 2층으로 연결된 공간, 외부와 연결된 공간 등 여러 단위의 구성이 가능하여 이용자에 의해 가변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휴식으로, 모임으로, 혹은 한시적 가게나 문화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길의 장소로서의 가치

거리와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은 경사지에서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으로서의 단을 만들어야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통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건너편 주민들이나 상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언덕을 올라가다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갑갑한 도시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여기에는 중립동을 배경으로 한 옛 사진들에서 흔히 보던 골목길 자체가 ‘동네 거실’로서의 기능으로 활용되던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오마주이자 옛 정서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또한 도심에서는 감히 시도조차 낯선 외부공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만들었다. 좋은 자리를 어떠한 기능의 프로그램이 점유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앉았다가 어디든 가고 싶도록 한 것이다. 옛 동네를 걷다가 흔히 마주치는 좁은 계단의 언덕길, ‘저 길로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건물을 궁금하게 하고, 다녀보고 싶게 하는 장치가 된다. 건물을 중립동 골목인 것처럼 자연스레 지나다 보면, 건물 곳곳에 숨어 있는 다른 각도의 외부공간들을 만나 평상시 경험해 보지 못하던 외부공간에서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헌 것을 고쳐 써야만 재생인가

중립창고는 ‘재생지역에서 진행된 재생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 중립창고의 작업은 원래 있던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이 건물을 짓는 행위였지만, 그 새로움이 낯설지 않고, 길의 배경으로만 있던 원래 건물 대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흐름을 건물 안에서 만들고, 건물 내외부의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못 보던 풍경을 보여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한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벌어지는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들이나 경험들이 기억 또는 추억으로 남게 되어 길의 장소적 가치를 회복하는 작업, 그것이 재생작업인 것이다.

‘재생’ 하면 흔히 낡은 건물을 고쳐 쓰는 것(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생은 어떤 장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가진 기억의 공유를 존중하며,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다 같이 다시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중립창고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창고이다.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 물건을 보관하는 물리적 창고였다면 이제는 다녔던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장소와 장소에서의 추억이 생각나는 기억의 창고가 되면 좋겠다.

© HJ
027



© USO



상 외부 오픈스페이스
중 추억을 만드는 장소 -2층 외부공간
하 호기심을 갖게 하는 내부공간

항공 100년의 역동성을 담은 건축

윤세한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개요

대치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지역지구	도시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용도	운수시설(공항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15,000m ² (계 3,425,949.9m ²)
건축면적	7,330.30m ² (계 201,889.79m ²)
연면적	18,593.50m ² (계 424,519.24m ²)
건폐율	0.21%(계 5.89%) / 법정 20% 이하
용적률	0.41%(계 11.23%) / 법정 50% 이하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26.65m(해발고도 38.4m)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조경면적	2,978.39m ²
주차대수	172대(지상 62대, 지하 110대)
주요 외장재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화강석, 테라코타
설계담당	김성원, 문봉주, 김민석, 한진욱, 김도훈, 엄수려, 김용기, 지석진, 최용재
설계기간	2015. 10.~2017. 12.
시공기간	2017. 9~2020. 6.
시공	해동건설(건축), 시공테크(전시)
건축주	국토교통부



국립중앙박물관 전경



하늘길에서 바라본
비행기 터빈 형태의 건축조형

하늘을 나는 것은 오랜 기간 인류의 꿈이었다.
자랑스러운 항공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은 100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항공의
역동적인 궤적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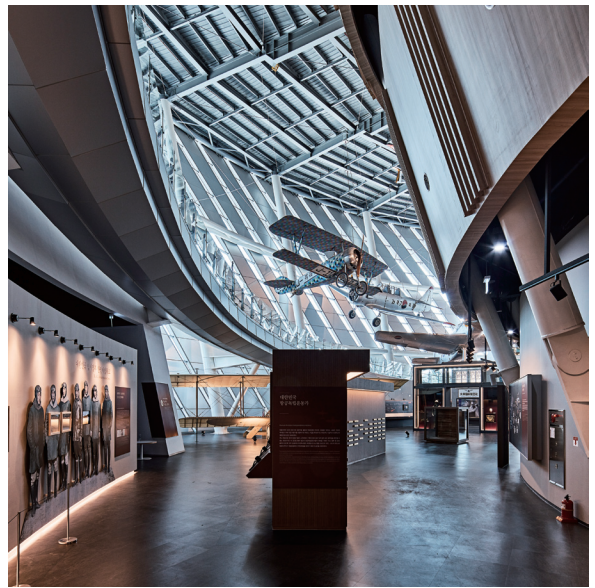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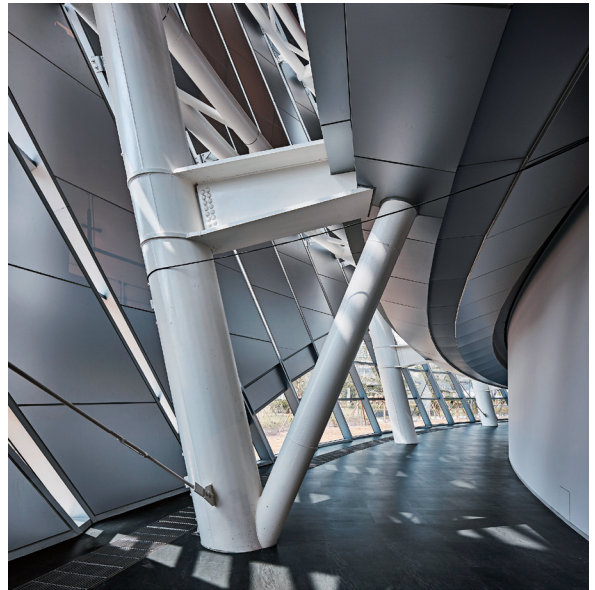
100년의 대한민국 항공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항공갤러리, 에어쇼



©이남선, (주)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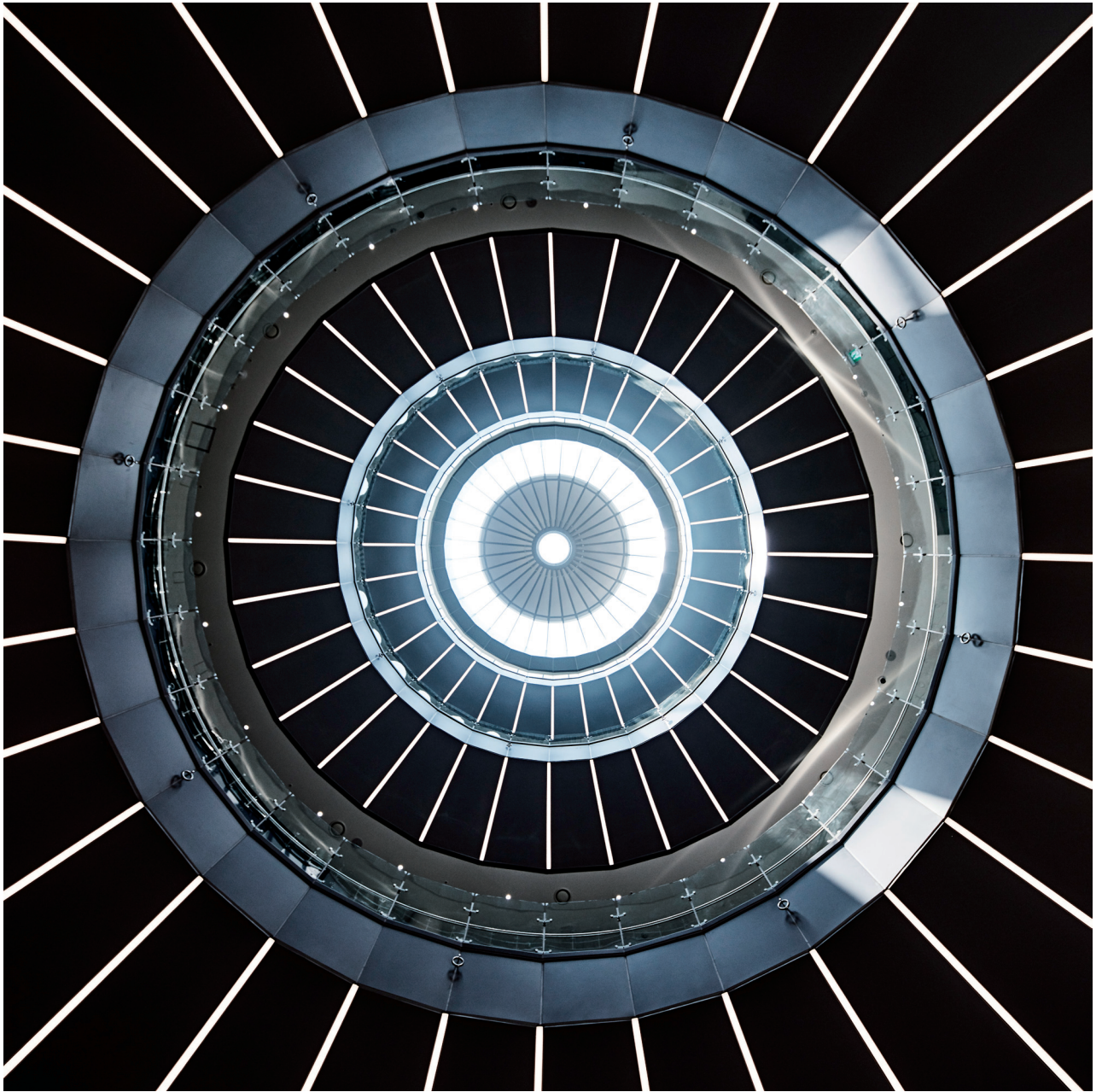


©이남선, (주)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이남선, (주)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항공갤러리를 관통하는 100m 길이의
무장해 입체관람동선, 에어워크
하 에어워크 구조상세



비행기 터빈 속 역동성을 표현한
국립항공박물관의 심장, 아트리움



©이남선, (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이남선, (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 바라본 전경
하 원형의 전시동과 사각형의 관리동의 만남

항공이라는 전시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에어터빈’, ‘에어쇼’, ‘에어워크’,
세 가지의 디자인 개념으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국립항공박물관만의 경험을 제공한다.



국립항공박물관
외관

하부 경관조명으로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야경

에어포트시티로 성장할 김포공항의 구심점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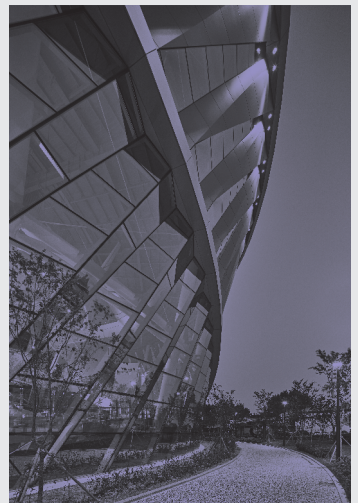
김포공항에 위치한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양한 도시축의 방향에 정면성을 가지면서 공항영역과 배후지원단지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다면성을 갖는 원형의 배치를 제안하였다. 비행기 전시에 어울리는 원형의 전시동(4층)과 수장, 업무, 설비 등 기능에 최적화된 직사각형의 관리동(2층). 두 기하학이 만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으로 건물 배치를 완성하였다. 건물의 주출입구는 하늘길에서의 인지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차로를 활용한 남서 측에 위치시키고, 옥외주차장은 국내 선 제1주차장과 인접해 배치하였다. 하늘길을 바라보는 전시동의 전면에 옥외전시공간을 조성해 투명한 파사드를 경계로 내외부 전시공간이 소통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공항 내에서 문화와 경관의 아이코노로 자리 잡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제적인 에어포트시티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김포공항의 새로운 구심점이다.

항공 맞춤형 전시공간을 제안하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을 주제로 설립된 최초의 ‘국립’ 박물관이다. 김포공항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할 만한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교육·전시·체험의 전당을 만들고자 하였다. 과학과 자유, 아름다움, 모험의 정신을 담고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박물관을 위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 전시공간에 어울리는 세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비행동력 장치를 모티브로 한 ‘에어터빈’이다. 기계미학과 과학기술이 집약된 터빈의 형태와 기능을 재해석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었다. 다음은 비행의 자유로움과 역동성을 담은 전시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에어쇼’를 연출해 기존의 항공 전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 전시공간을 담았다. 또한 비행기를 직접 타지 않아도 하늘 속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끼는 특별한 관람동선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높이의 비행기 사이를 관통하는 입체 관람동선 ‘에어워크’를 따라 창의적인 조형 속에서 빛이 가득한 전시공간을 체험케 하였다.

©이남진 (주)헤인켈엔지니어링사무소 제공



상 진입로비측 야경
하 항공갤러리측 야경



© 국립항공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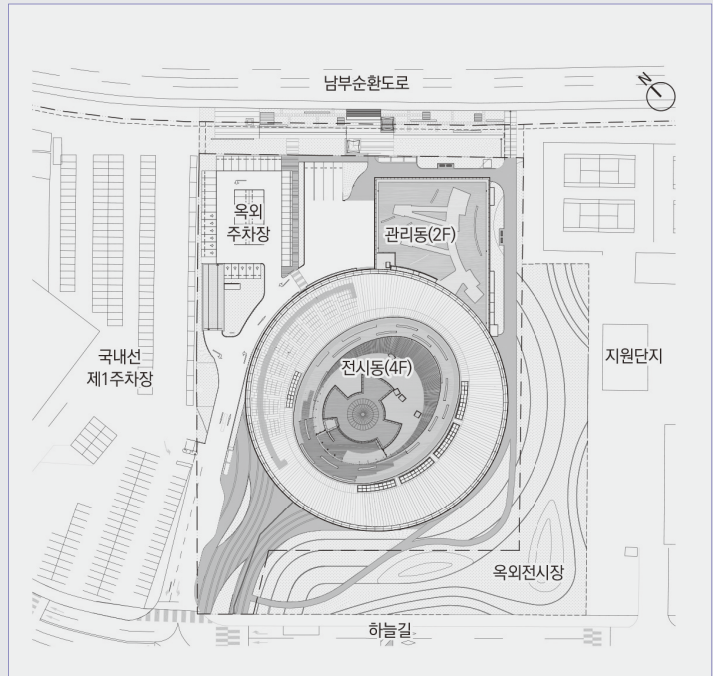


© 이남선, (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에어터빈
하 에어쇼

항공 100년의 역동적 랜드마크, 에어터빈

하늘을 나는 것은 오랜 기간 인간의 꿈이었다. 대한민국의 항공은 자랑스러운 항공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100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항공의 역동적인 궤적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한민국 항공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였다. 제트엔진의 날개를 닮은 96개의 입면모듈은 360도 회전하며 원형의 전시공간을 감싸고 에어터빈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비행동력장치의 기계미학과 우아한 새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입면계획으로 하늘로 비상하는 독창적인 경관을 제공한다. 동일한 각도지만 원형으로 기울어진 형태 때문에, 운동감을 주는 터빈의 날개는 시간에 따라 태양과 하늘 빛에 반응하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 (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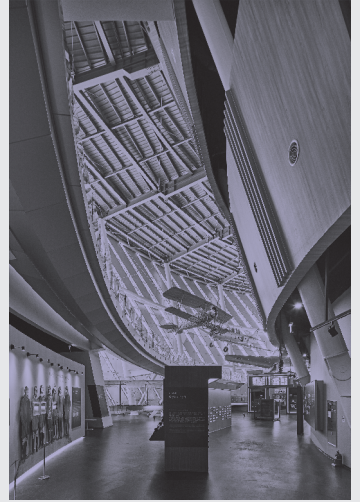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파노라마, 에어쇼

항공산업이 대중화되면서 국가의 첨단 국방기술과 항공기술의 집결지가 된 에어쇼는 무궁무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 잡았다. 비행의 자유로움과 역동성이 느껴지는 살아 있는 항공 갤러리(전시공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를 하나의 공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 놓은 ‘에어쇼’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볼거리가 있는 비행기 전시공간을 통해 항공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함이다. 항공갤러리는 폭 20m, 높이 20m의 대공간이자 초승달 형태의 공간으로 계획해 비행기의 역동적인 흐름을 극대화하였다. 층별 전시실과 항공갤러리 사이에 위치한 경사 발코니를 매개로 위 또는 아래에 떠 있는 비행기의 모습을 관람하는 도중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

비행기 사이를 관통하는 입체적 관람동선, 에어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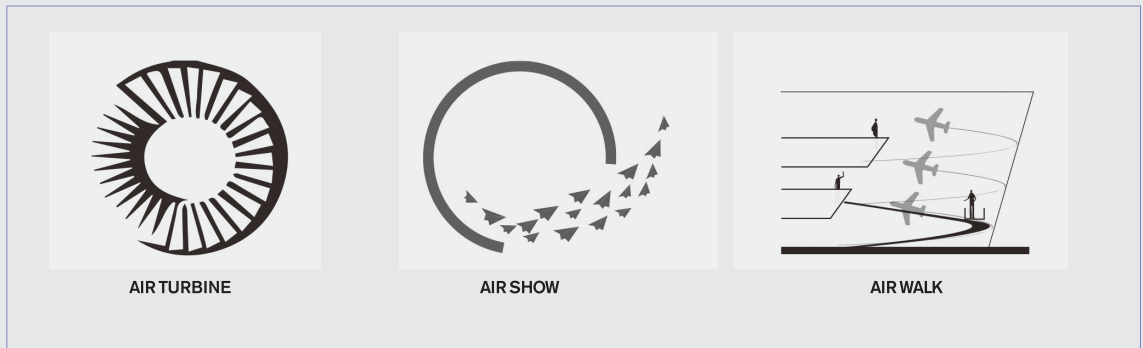
비행기 사이를 가르며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국립항공 박물관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주 관람동선 ‘에어워크’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중부양공간이다. 다양한 높이에 설치된 전시물 사이를 걷는 입체적인 관람동선으로 비행기와 함께 하늘을 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에어워크를 땅에 지지하지 않고 부유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경량의 철골구조와 캔틸레버 형태의 디테일을 적용하였다. 또한 1.8m의 폭에 13분의 1의 경사도와 100m 길이의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동선으로 만들었다. 에어워크를 따라 거닐면 대한민국 항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남진 (주)헤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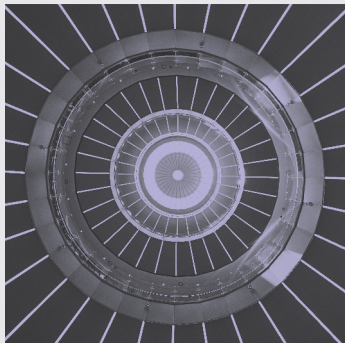


에어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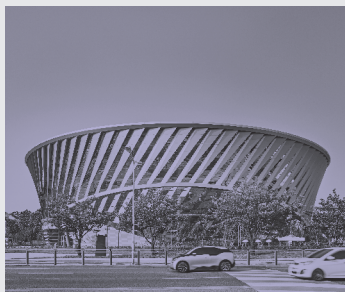
©(주)헤인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이어그램



©이남선, (주)에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아트리움
하 그랜드아치

에어터빈의 심장, 아트리움

원형 전시동의 중앙에는 에어터빈의 심장을 품은 ‘아트리움’이 위치한다. 이 공간은 로비에서 진입 후 처음 만나게 되는 박물관의 첫 인상이자 전시실과 전시실을 잇는 연결공간이며, 관람 중 쉬어 가는 휴식공간이다. 원형의 기하학으로 균등하게 분절된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이 들어오고, 경사 형태의 금속 패넬에 매입한 수직조명과 패넬의 줄눈, 유리난간 라인이 일치하면서 공간의 상승감과 역동성이 극대화된다. 순환동선의 중심이자 엘리베이터와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다양한 동선이 모여 있어 공간이동의 구심점이 되는 박물관의 상징적인 공용공간이다. 전 층을 관통하는 아트리움에 들어서면, 에어터빈 내부에서 있는 듯한 공간감을 상상하게 된다.

비행기 격납고를 닮은 그랜드아치

건축물의 외관은 원형의 전시동과 직사각형의 관리동이 차별화되도록 계획하였다. 먼저 전시동의 경우 각 입면모듈은 동일한 크기의 삼각형 모듈로 균등하게 분절해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환기, 일사 제어에 모두 유리한 스마트 스킨으로 계획하였다. 한옥의 처마처럼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경사진 형태의 매스는 여름에는 일사가 차단되고, 겨울에는 일사를 유입한다. 주 진입로인 하늘길과 옥외전시장 방향으로 열린 아치 형태와 투명한 입면 구성으로 정면성을 강조하고, 내부의 항공갤러리가 외부에서도 잘 인지되도록 하였다. 전시동에 관입된 형태로 조화를 이루는 관리동은 수장고와 업무시설로 구성된다. 공조실의 그릴 오프닝과 업무공간의 수평띠창 높이에 맞춘 수평 형태의 입면으로 기능미와 속도감을 강조하였다.

BIM 설계 도입으로 고품질 설계 구현

복잡한 조형을 가진 국립항공박물관을 고품질의 설계 성과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3차원 설계데이터로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도면작성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존 2D 설계방식 대신 비정형 건축의 도면 작성과 시각화, 물량 산출 등이 가능한 BIM 설계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설계개념 중 가장 중요한 날개 형태의 외피는 개념 매스를 활용한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다양한 고난도의 기술(Loft, UV Grid, Adaptive Component, Curtain-wall System)을 총동원해 정합성 높은 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선시공 개념의 BIM 설계를 통해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비정형 건축물 구현이 가능하였다. 국립항공박물관 BIM 설계는 2016년 빌딩스마트협회장상(계획부문 1등상)을 받았으며, 2017년 조달청 BIM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국립항공박물관의 비상을 기대하며

2015년 12월 현상설계 당선 후 2017년 12월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기까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항공에 맞춘 형태로 에어 터빈을 닮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개념은 아주 심플하지만, 입체적인 조형이 초래한 비정형의 커튼월과 외피 그리고 내부의 기울어진 벽체와 마감, 최대한 가볍게 보여야 하는 구조의 디테일 등 새롭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계팀원들과 함께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해동건설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과 지원을 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꿈을 키우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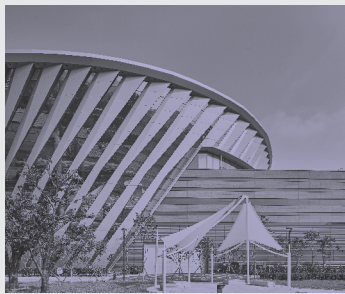
©이남진 (주)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실내 천장 및 보이드 공간



© 국립항공박물관 제공



© 이남선, (주)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하부 경관조명으로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야경

하 원형의 전시동과 사각형의 관리동의 만남

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 비행학교 ‘윌로스 비행학교’가 개교하였다. 그곳에서 어렵게 비행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독립운동과 6.25전쟁에 참여해 활약하며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를 시작하였고, 10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는 항공운송 세계 6위와 항공기 제작 세계 12위라는 위상을 가진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한인비행학교 개교 후 100년이 지난 2020년 7월 5일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렇게 역동적인 역사를 써 가고 있는 대한민국 항공문화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이정표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위치한 김포공항은 일제시대 군비행장으로 시작해 민간공항과 국제공항으로 이용되기까지 대한민국 항공의 크고 작은 역사와 함께한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앞으로 에어포트시티로 성장할 김포공항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갈 항공의 대표 랜드마크로서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밝히는 역동적인 장소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항공문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38

포럼 및 세미나
141

연구소 단신
14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연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발코니 활성화 방안	조상규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김은희
현안 연구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 연구	김해리
	건축외관 정보 구축을 위한 딥러닝 적용방안 연구	손동화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조성 개선 방안 수립	방재성

수시연구

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발코니 활성화 방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감염증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기능과 역할에도 대 전환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형태가 변화하고, 교육시설 전반의 등하교에서 온라인 학습이 시행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배 등 배달을 통한 인터넷 쇼핑 등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등 휴식을 위한 '집'이 아닌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는 '올인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지침 이행을 위한 도시 밀도의 설정을 포함하여 기존의 주거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서비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집에서의 거주시간이 확대됨에 따른 협소한 주택 면적과 공원 등 옥외공간의 방문과 이용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코니 조성을 통한 활용성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폐쇄적 공간구조를 발코니의 구성과 활용을 통해 개방되고 친자연적인 외부공간을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조상규

②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2008년 「건축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건설' 중심의 제도적 여건으로부터 사회적·문화적 가치로 인

식되는 '건축' 기반의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으로 건축서비스 활동도 산업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건축의 사회적·문화적·산업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즉, 건축물 조성 및 사용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그 기초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의 '건축' 개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현행 건축물 조성 관련 법령에는 산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혼재되어 있다. 건축정책 또한 건축물이라는 공통의 결과물을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 개별법에 따라 분절되어 연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 생산 양상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건축산업 통계는 '건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축서비스나 유지관리 산업 통계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획 및 설계로부터 시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건축행위로 생산되는 부가가치 산업을 건축산업으로 규정하고, 요구되는 필수적인 통계와 이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건축환경에서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특정 집단의 주장에 앞서 객관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건축정책 수립과 실행의 출발로서 이 연구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김은희

현안연구

①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 연구

2020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총 1조 4,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6억 원(29.8%) 증가하였으

며, 이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은 급격한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조성에 따른 실태 파악은 미흡하여 공급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및 시설 조성 실태, 시설 이용 및 수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요 기반의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을 모색하고, 관련된 후속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정책 사업 실태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시설 사례별 세부 기능 구성과 공간 배치 특성 및 설계 주안점 등 시설 조성 실태 분석,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이용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한 공간 이용 및 수요 실태 분석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련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과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시설의 개별 업무공간은 기업 성장주기에 따라 개방형·폐쇄형 보육실을 혼합한 공간 계획 및 배치가 필요하고, 회의실·OA실·휴게 및 편의시설 등 공용공간은 개별 기업이 전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공간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차이를 최소화 한 동선 계획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 계획 및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계자 및 창업생태계 관계자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시설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창업지원시설 규모별 계획 특성 심층 분석을 통한 보다 세부적인 공간 디자인 방향 제시, 이용자 뿐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공간 이용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향 제시, 학제간 연구를 통한 창업지원시설 계획 특성과 업종별 입주기업성장효과와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고찰 등의 후속과제를 추진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리

② 건축외관 정보 구축을 위한 딥러닝 적용방안 연구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2개의 국가중점 데이터와 약 38,396건의 데이터(2020년 8월 기준)는 공통 개방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한국건축구정e시스템, 지자체 제공공공정보 등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되는 인허가, 건축물대장, 폐말소대장 등 건축행정정보는 2차원 중심의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간·비용·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기 구축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건축행정정보와 BIM정보 등을 3차원 공간정보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건축물 외관정보의 경제적·효율적 구축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딥러닝 기반 영상 식별 기술을 이용한 건축 외관정보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 검토를 통한 딥러닝 기술수준 검토 및 적용방안을 살펴보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관정보 식별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구축된 3차원 공간지도의 이미지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시간·비용·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축외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화

③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조성 개선 방안 수립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장기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으나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2월 대구, 경북지역 확산 이후 5월과 8월 수도권에서 재확산되어 안정과 확산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감염병 장기화와 재유행, 향후 유사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주요시설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조성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 보건, 방역정책 및 계획이 근간을 이루되 재난, 도시, 건축계획(설계)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며 관련 영역의 정책, 계획, 사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음압격리병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감염 관리 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방향 정립을 토대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에 부합하며 관리시설 간 위계와 역할 정립에 기반한 '선별진료소 유형별 시설 조성 기준', '국공유 자산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시설개선 방안', '임시주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재난과 감염병의 상시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감염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개선방안', '재난시대 건축 관계법령 개정 방향' 연구 등 일상의 건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와 '공공건축물과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탄력적 활용에 대한 연구' 등 공공의 공간과 건축 이용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방재성

2020 제1차 DIT 워크숍 'Come on DIT' 개최



news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7월 22일(수)부터 25일(토)까지 4일간 '2020 제1차 DIT 워크숍: Come on DIT'를 개최하였다. LH, 군산 지역 스타트업 회사인 LMO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군산여고 앞 방치된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폐건물 재생 프로젝트로, DIT 시공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커뮤니티', '안전', '재미', '환대', '문화'의 키워드를 담아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폐건물 재생·일본식 가옥 복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직접 시공해보고 싶거나 현장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폐건물의 담장과 마당, 키타루 등을 리모델링하였다.

이에 스스로 작업하는 'DIY(Do It Yourself)'에서 함께 만드는 개념을 더한 'DIT(Do It Together)'를 통해 서로 단절된 상태로 작업을 이어가는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사용자가 함께 팀을 이뤄 하나의 공간을 완성하면서 해당 공간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단순히 기술력을 높이는 기술자 양성 교육이 아닌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기술 습득을 통해 MAKER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특히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의(衣·공동키트), 식(食·공동식사), 주(住·공동숙박), 그리고 공동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로컬 기반의 단단한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했다.

로컬-리콜(Local Recall) 첫 번째 시리즈 '신제조업의 영민한 루키' 제1~3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베타시티 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20 세운 글로벌 포럼 '로컬-리콜(Local Recall) 첫 번째 시리즈'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로컬-리콜 첫 번째 시리즈인 '신제조업의 영민한 루키'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조업의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대응하는 신제조업의 대표주자로부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사업을 개척하고, 국내외 제조업을 진단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7월 23일(목)에 진행된 1차 행사에서는 '제조업의 공진화를 위한 제안 : 삼영기계'를 소개하였다.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서 샌드 3D 프린터를 만드는 삼영기계를 통해 업계 최고 기술을 가졌음에도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주물 공정에 신기술을 도입했던 이유 등을 전하며, 이에 반해 작은 공정으로 나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8월 5일(수)에 열린 2차 행사에서는 '혁신은 멀지 않아, 공구업계 콜럼버스 : 더하이브'를 선보였다. USB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개발한 더하이브는 레드오션 시장인 전동공구 분야에서 특색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축학도가 '2019 100 만불 수출탑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혁신의 실마리를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금)에 개최된 3차 행사에서는 '세번째 팔을 창조하다 : B.A.T'를 알렸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과 예술 산업 등 창작·제조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작자 그룹으로, 인간의 복잡하고 섬세한 상상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제2, 3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건축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건축문화자산의 가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보전·활용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춘 ‘건축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 단계는 건축문화자산이 지닌 역사·사회·문화적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들의 가치와 의미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강연회를 통해 옛 건물로서 다양한 건축문화자산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점에 대한 방안, 고유의 콘텐츠를 담기 위한 설계기법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7월 8일(수) 개최한 제2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을 통해 본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주제로, RoA건축사사무소 김경도 소장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마포 문화비축기지뿐 아니라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의 디자인 콘셉트와 설계에 있어 기존 건축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풀어냈다.

이어 8월 11일(화) 열린 제3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남산아래 투탑바위 마을 후암동, 마을을 집으로’라는 강연을 마련했으며, 도시공간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이준형 소장과 함께 ‘후암동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후암동 마을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후암주방·후암서재 등 공유공간을 조성 및 운영했던 과정과 경험을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ews



제3~5차 건축서비스산업 세미나 '수요살롱'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세미나: 수요살롱'을 기획하여 상·하반기 수요일에 맞춰 각각 3회, 총 6회에 걸쳐 살롱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7월 8일(수) 개최된 제3차 수요살롱은 '건축기록과 기획'을 주제로 사이트애피지 박성진 대표가 강연을 진행하고 한국건축사진가회 윤준환 작가, 성균건축도시설계원 김경완 실장이 함께 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측면에서 기록과 기획, 설계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나 설계와 시공으로 이분화된 시장 구조에서는 기획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기획 분야의 가치 형성과 시장 확대가 요구되며,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 저작권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7월 22일(수) 열린 제4차 수요살롱은 잘그린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을 초청하여 '신산업 기획방향 - 친환경 건축설계'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축사사무소 티오피 이영호 대표 이사와 함께하였다. 민 소장은 잘그린건축연구소를 비롯하여 드웰링건축사사무소, COVER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연구와 친환경 건축설계 및

관련 자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주도 사업 모델의 경우 기존 건축시장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전하며, 참여주체(개인) 중심의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5일(수) 진행된 제5차 수요살롱은 '도시 건축 기록 - 기록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시청 이성민 학예연구사가 김중업박물관 부지 기록사업,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등 직접 진행했던 아카이빙 프로젝트와 큐레이토리얼 실천 사례를 공유하였다. 발제 후 제대로랩 정귀원 대표와 함께 건축·도시 기록의 의미와 가능성,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11차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CPTED 관련 교육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약 250여 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실효성 높은 연구 및 사업을 위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양대학교 하미경 교수, 무운건축사사무소 변문수 소장,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한 교육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먼저, 하미경 교수는 7월 6일(월)과 7월 20일(월) 개최한 교육 세미나에서 조명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빛과 색의 차이를 인지하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변문수 소장은 7월 20일(월) 열린 교육 세미나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고, 이 중 범죄예방에 관련된 건축심의 현황을 통해 범죄예방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민경 교수는 여러 유형의 범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7월 24일(금) 노상범죄 특성 및 예방방안, 8월 20일(목) 범죄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9월 1일(화) 절도·폭력범죄 특성 및 예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한 강연회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지역보존정책'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28일(화) 대회의실에서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가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지역보존정책: 면형(面形) 유산의 관점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쟁 이후 1950년대 일본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멸실되면서 이를 지켜본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은 역사문화자원의 멸실 및 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운동과 지자체·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 등을 통해 지역성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요소를 소개하였다.

또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중요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 제도, 「경관법」 제정, 중요문화적경관 제도 등 면형 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보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관광 슬로건인 'JAPAN Endless Discovery'와 연계하여 지역유산의 관광자원화를 꾀하거나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주제를 확장 및 발전시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일본의 면형 유산 제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3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 5일(수) 중회의실에서 제 3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 경관 릴레이 세미나는 경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고 경관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국토경관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경관학회 회장인 주신하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여름부터 2019년 겨울까지 수행한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영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당진시 경관 자원조사 영역은 지자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조사를 수행한 첫 사례인 만큼 조사체계와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체계적인 경관자원 기초조사를 위해 경관 자원조사, 경관구조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당진시 경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당진시 고유의 경관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업결과물인 일반·우수경관자원 자료집, 경관자원 위치정보 등은 경관계획수립, 우수경관자원 활용사업, 경관 관련 지구 지정, 관련 부서 활용방안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 전했다.



공공건축 세미나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 25일(화) 중회의실에서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 주안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공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 주안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공 건축상 우수상과 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스튜디오메조 건축사사무소 김태영 대표를 초청하여 연천 국공립 어린이집 설계공모의 준비과정과 젊은 건축가의 성장발판이 되는 공공건축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 대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바람직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서 기획, 설계(공모), 시공, 사후관리 에 이르는 단계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마도로스의 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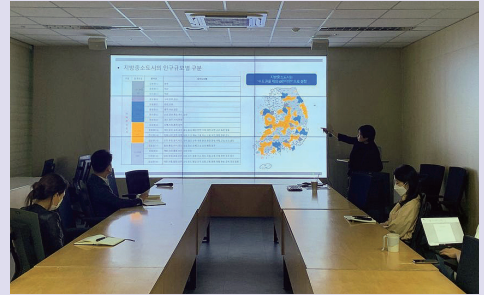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16일(수) 인천 개항로에서 '마도로스의 밤'이라는 주제로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기반 산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지역에 정착한 청년 주도로 설립되는 지역관리회사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지역관리회사의 정착 과정과 운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역관리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주선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지역관리회사 4개 팀이 발제자로 나섰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창길 대표, 군산에서 영화타운을 운영하는 조권능 (주)지방 대표, 부산 영도에서 활동하는 김철우 RTBT Alliance 대표, 목포로 내려가 '관찰아 마을'을 시작한 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가 차례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미 지역관리회사의 개념이 자리 잡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관리회사는 어떤 모습인지 각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팀별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지역에 대한 범위, 부동산과 금융 등 지역관리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겪는 다양한 문제와 지역관리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auri 지식강연회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유형화'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24일(목) 중회의실에서 제2차 auri 지식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소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식 함양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 빈공간 재생'을 주제로,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전문가를 통해 지방도시 주거지 유형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 관련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LH 토지주택연구원 김홍주 수석연구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위계와 주거지 유형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2018년 진행된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주거지 유형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홍주 수석연구원은 대도시 중심의 기존 공모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구조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주거지 유형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사각지대 없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2019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발
사업의 한축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과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2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3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4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5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6
지역의 공유기차출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7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8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9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27,000원

2018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8-1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1
클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2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3
상업적 센터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4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5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6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7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춤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8-1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2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3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4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2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3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 우리 사회가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4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5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4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6
2017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7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8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0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1
한옥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12,000원

2017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7-1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3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4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5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정립 및 개선을 중심으로 -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6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정 제도 개선방향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7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8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9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0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1
신 기후체제 대비 건축물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2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24,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2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3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5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7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8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2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정 제도사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3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복지시설 편-
 11,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4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5
대도시 노후 상업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6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7
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지붕수선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8
2016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50,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9
2016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48,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0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1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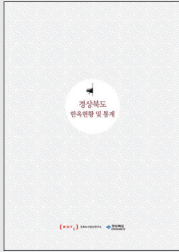
일반연구보고서-2017-12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9,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판매용 도서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경상북도 건축현황 및 통계
이민경, 이종민, 방보람
비매품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안내서
이종민, 김중범
비매품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민경, 이종민, 권영란
비매품



건축자산 기획이야기 :
경북 영주시 (구)부석편사무소,
충남 부여군 (구)자운양조장
이민경, 이종민, 김민지, 류수연
비매품



2018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오성훈, 김성준, 김영지
40,000원



2018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오성훈, 김성준, 허재석
23,000원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 매뉴얼
건축문화자산센터
비매품



2019 한국 전문인력
양성사업
김해리, 이종민, 박혜정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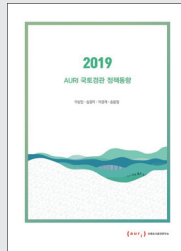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재성, 양은영, 김은희
비매품



마을재생 시공학 개론
- DIT 건축재생
윤주선, 장민영, 김영하
비매품



201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2019 AURI
국토경관 정책동향
이상민, 심경미, 이경재, 송윤정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
김은희, 박소영, 서수정, 윤주선,
이영범, 이영은, 이재우, 장민영,
장원봉, 조준배
28,000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조영진, 한수경, 현태환, 박유나,
유혜정, 경철정 범죄예방정책과
비매품

참고문헌

서명

서
카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1.1 ~ 2020.12.31	세종우체국승인 제40061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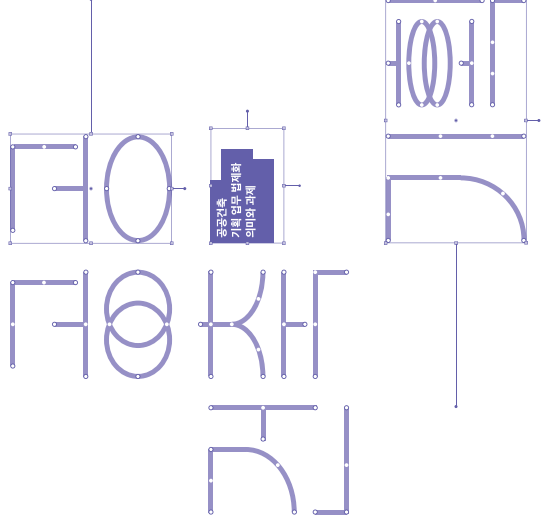
블루스 클럽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3013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
